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 HELLO NEXEN



**NEXEN**  
NEXEN TIRE

OFFICIAL PARTNER OF  
MANCHESTER CITY FOOTBALL CLUB

MOVE  
BRILLIANTLY

NEXEN facebook



[www.nexentire.com](http://www.nexentire.com)



HELLO NEXEN  
Vol.69 2017년 가을호

# CONTENTS

2017 Vol. 69



## 표지 이야기

넥센타이어는 지난 3월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FC와 슬리브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선수 유니폼 소매에 새겨진 넥센타이어의 이름은 전 세계에 노출되며 국제 무대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 NEXEN TODAY

### 04 포커스 온 넥센

Best Designs of NEXEN TIRE

### 08 줌 인 넥센 1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와 MOU

### 10 줌 인 넥센 2

넥센에 의한 팬들을 위한 넥센의 AU7데이!

### 12 넥센 뉴스

넥센타이어의 이모저모

### 18 베스트 파트너

타이어테크 서청주점

### 22 넥센 갤러리

넥센인의 특별한 여름휴가

### 28 나눔 스토리 1

사랑을 더하고 나눔 양로원 봉사활동

### 30 나눔 스토리 2

노구소 주민들, 고척돔의 히어로즈 되다

### 32 피플 & 피플

칭찬합니다



## NEXEN TOGETHER

### 38 스페셜 테마 1

목표는 전문가, 앞길을 밝혀줄 인생 격언

### 40 스페셜 테마 2

소박해? 새로워! 취미를 날개로 만든 사람들

### 44 스페셜 테마 3

전문성이 나의 미래를 바꾼다

### 48 인터뷰

과학탐험가 문경수

### 52 위 아 더 넥센

창녕공장 가류파트

### 56 넥센인 특

자기 계발 어떻게 하고 있나요?

### 58 넥센인 생활백서

깊이 있는 전문가 vs 잡학다식

### 62 패밀리 데이

빵 굽는 냄새는 행복의 냄새와 닮아있다

### 66 대·담하다

서울사무소 등산 마니아 4인

### 70 넥센 어라운드

N-TALK을 정기 강연



## NEXEN TOMORROW

### 74 포커스

프리미엄 드라이빙을 위한  
혁신 기술의 신제품 엔페라 AU7

### 78 스포츠 마케팅

넥센타이어,  
영국 프리미어리그 변화의 중심에 서다

### 82 넥센 트래블

가을을 그대 품 안에

### 86 건강 가이드

건강 위해 등산? 등산 위해 준비 만반!

### 90 집밥 넥센생

초간단 아침밥 레시피

### 94 넥센 살롱

전문직 주연 영화 BEST 3

### 98 Thanks

사우들의 사보 참여 후기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7년 가을호 통권 69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17년 10월 10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 담당 문화혁신팀 (02-3480-0369)

기획 및 출판 (주)하이미디어P&I (02-795-3364) 디자인 이시라, 한병희, 최주용 사진 (주)사진과책 교정 이은실 프로세스 (주)하이테크컴 (02-741-3377) 인쇄 (주)신우인쇄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Best Designs of NEXEN TIRE

국내는 물론 해외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진가를 인정받은 넥센타이어.  
50여 개의 수상 목록중 10개 제품을 골라 소개한다.

출처 제품디자인팀



# 2004년

대한민국 굿 디자인 어워드 ▶ 산업자원부장관상 \_ N5000

V형 트레드 패턴을 채용, 빗길 배수 능력이 탁월하며 고속에서 편안한 드라이빙 가능.



# 2011년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 본상 \_ WINGUARD Sport

겨울용 UHP 타이어로서 고성능 스포츠 차량에 적합한 타이어 패턴과 구조로 주행 안정성 확보.



# 2012년

대한민국 굿 디자인 어워드 ▶ 본상 \_ N9000

접지부에 번개 형상의 디자인 패턴을 적용한 그립력과 고속 주행이 탁월한 스포츠 타이어.



# 2013년

일본 G-Mark 디자인 어워드 ▶ 본상 \_ N9000

접지부에 번개 형상의 디자인 패턴을 적용한 그립력과 고속 주행이 탁월한 스포츠 타이어.



# 2014년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 FINALIST \_ GREEN HIVE

휠 일체형 타이어에 소모품인 리필형

트레드(접지부)만 구입하여 사용

가능한 차세대 제품.

세계 최초 4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넥센의 그랜드 슬램 달성





#### # 2014년

#####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 ▶ 본상 \_ N'FERA SU1

태풍의 강한 이미지를 직선의 단순화를 통해 제품에 반영한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코너링과 안정성을 발휘.



#### # 2015년

##### 대한민국 굿 디자인 어워드

##### ▶ 진흥원장상 \_ N'FERA SUR4

초고성능 레이싱 타이어로, 독수리의 날카롭고 강렬한 이미지를 디자인에 적용했으며, 최적화된 그립력을 통해 안정된 고속 주행 능력을 자랑하는 제품.



#### # 2016년

##### 일본 G-Mark 디자인 어워드

##### ▶ 본상 \_ N'BLUE PLUS

나비의 우아한 선과 역동적인 날갯짓에서 영감을 얻은 친환경 디자인과 세련되고 화려한 유퍼먼 스타일을 선보인 타이어.



#### # 2017년

#####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 본상 \_ N'FERA RU1

포르쉐 카이엔에 공급 중인 제품으로, 탁월한 승차감과 뛰어난 정숙성을 자랑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용 프리미엄 타이어.



#### # 2017년

#####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 FINALIST \_ BREATHRE / N'FERA AU7

(원)대기오염,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콘셉트 타이어.

(오)고급 세단을 위한 고성능 타이어로, 소음을 저감시킨 것이 특징.



#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와 투자유치 MOU 체결

공장 증설, 유통망 확대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가속화 전망

출처 넥센타이어 보도자료



넥센타이어가 UAE(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이하, 무바달라)로부터의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섰다.

넥센타이어는 “7월 19일(현지시간) UAE 무바달라 본사 빌딩에서 넥센타이어 강호찬 사장과 무바달라 칼둔칼리파 알 무라바크 그룹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 참여도 진행할 예정이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무바달라 측의 투자를 통해 향후 해외 시장 진출과 추가 공장 증설, 유럽과 미국 내 유통망 확대 등 글로벌 경영 계획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무바달라 역시 이번 지분 투자를 계기로 향후 폭넓은 파트너십을 구축,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투자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자동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무바달라는 국내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만수르가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는 125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부펀드 중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무바달라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우주항공, 반도체,

ICT, 금융자산 등 13개 부문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에어버스, GE, 보잉, 롤스로이스 등 업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에서는 페라리, 다임러, 테슬라 등에 투자한 바 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넥센타이어는 무바달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최초의 타이어 업체가 됐다. 넥센타이어는 업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한 회사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약 15%씩 성장해왔다. 전 세계 140여 개국에 연간 4000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 지역에서 매년 400만 개 이상의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강호찬 사장은 “이번 무바달라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은 ‘2025년까지 타이어 업계 글로벌 톱10 진입’이라는 회사의 목표를 앞당기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넥센타이어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무바달라 그룹의 왈리드 부사장도 “이번 투자 결정은 넥센타이어의 글로벌 경쟁력과 타이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결과”라며 “우리는 업계를 선도하는 넥센타이어와 파트너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상호 파트너십이 보다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⑩



# 넥센에 의한 팬들을 위한 넥센의 AU7데이!

글 김남희(마케팅팀) 사진 마컴팀



지난 8월 12일 고척스카이돔에서는 야구 경기에 색다른 즐거움이 더해졌다. 넥센타이어와 넥센 히어로즈를 사랑하는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행사, ‘넥센타이어 AU7 데이!’ 평생 잊지 못할 시구 · 시타 기회와 다양한 현장 이벤트까지, 수많은 넥센타이어 팬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넥센타이어 AU7 데이’ 행사는 프리미엄 신제품 엔페라 AU7의 성공적인 론칭을 기념하기 위해 AU7 데이란 이름에 맞추어 진행했다. 넥센타이어는 페이스북 이벤트를 통해 선정한 팬들과 타이어테크 대리점 가족 등 약 500명을 초청하여 당일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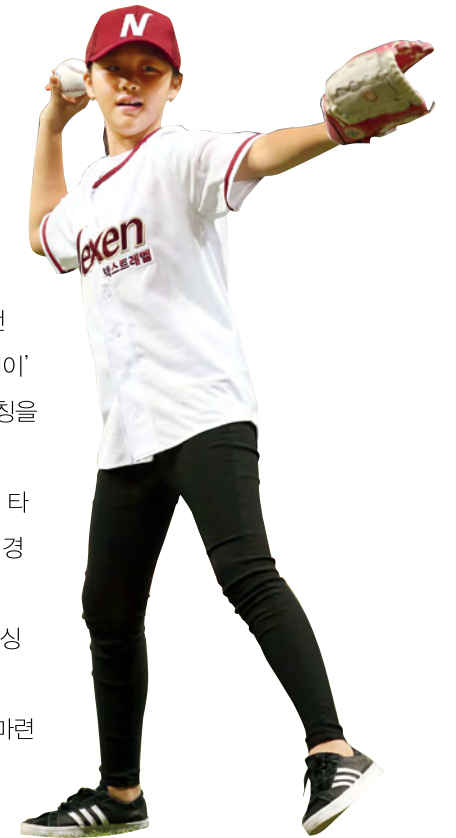
기 입장권과 야구모자, 응원봉, 엔페라 AU7 마우스패드를 증정했다.

초청 고객 접수처 옆에는 우리의 영웅, 넥센 히어로즈 선수들의 포토존이 마련되어 레이싱 모델, 덕돌이와 함께 포즈를 취하면 즉석카메라로 촬영해 주는 촬영 서비스도 제공했다. 또한 8월 출시한 프리미엄 타이어 엔페라 AU7의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도 마련했다. 타이어 내부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공명음을 획기적으로 차단하는 흡음제가 부착된 타이어와 부착되지 않은 타이어의 비교를 통해 소음이 감소된 부분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여, 엔페라 AU7의 한껏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알렸다.

줄이 가장 길게 늘어선 곳은 타이어를 직접 교체해볼 수 있는 피트스톱 게임과 행운의 룰렛 게임 부스. 빠른 시간 안에 타이어를 교체해 승리하거나 룰렛에 도전하는 팬들에게는 푸짐한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업계 최초의 신개념 타이어 렌탈서비스인 ‘넥스트레벨’ 부스도 빠질 수 없다. TV나 홈쇼핑에서 만나던 넥스트레벨을 현장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했고, 자세한 상담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안내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 타이어 렌탈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넥스트레벨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넥센타이어 AU7 데이’만의 특별 이벤트인 시구 · 시타를 할 행운의 주인공은 넥센타이어 페이스북 이벤트 당첨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경기장 안은 ‘넥센타이어 AU7 데이’를 기념해 넥센타이어 야구모자를 쓰고 응원봉을 흔드는 팬들로 가득 찼다. 경기 중 매회 휴식 시간을 이용해 관람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단체 응원, 퀴즈 이벤트도 진행하였고, 퀴즈를 맞힌 분들에게는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증정했다. 5회 경기가 끝난 뒤 클리닝 타임에는 ‘넥센타이어 AU7 데이’가 준비한 ‘타이어 굴리기’ 이벤트가 진행됐다. 동심으로 돌아간 참가자들의 모습에 야구장 분위기는 일순간 웃음바다가 되었고 1등으로 통과한 분께는 넥센타이어 AU7 무상 교환권이 우승 상품으로 주어졌다.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 진행된 ‘넥센타이어 AU7 데이’ 행사. 경기장 안팎에서 색다른 재미로 다가간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넥센타이어 팬들을 비롯해 야구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만들 계획이다. 언제나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가는 넥센타이어에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길 바란다. 🏆





## NEWS



## 美 '2017 IDEA 디자인 어워드' 2개 제품 본상 수상

넥센타이어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 제품이 본상을 수상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에서 주관하는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디자인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며,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최고 디자인 어워드로 손꼽힌다. 이번 수상 제품은 상용 제품인 '엔페라 AU7'과 미래 지향적 콘셉트 타이어 '브레셔(Breathre)'다. 엔페라 AU7은 고급 세단을 타깃으로 개발된 초고성능 타이어로, 최근 북미 시장에 출시했으며 국내에도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 특히 고속에서도 뛰어난 주행 안정성과 핸들링, 브레이킹 성능을 자랑하며, 주행 시 발생하는 타이어 소음을 저감시킨 것이 특징이다.

'브레셔(Breathre)'는 공기 정화 콘셉트 타이어로 최근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에 기여하고자 개발되었다. 타이어 내부에 공기 정화 필터를 내장하여 대기의 오염된 공기 및 미세먼지까지 걸러 정화된 공기를 배출함으로써, 타이어 업계가 환경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넥센타이어 천경우 연구개발본부장은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인 IDEA에서 콘셉트 제품뿐만 아니라 상용 제품이 본상을 수상한 것은 넥센타이어의 제품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은 물론이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전략으로 업계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올해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이탈리아 'A 디자인 어워드', 미국 '굿 디자인 어워드'와 '그린 디자인 어워드', '유러피언 디자인 어워드' 등에서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NEWS



## 글로벌 완성차 폭스바겐에 신차용 타이어(OE) 공급

넥센타이어가 독일 폭스바겐의 2개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OE)를 공급한다고 9월 11일 밝혔다. 먼저 폭스바겐의 베스트셀링 차종인 '폴로' 신형에 넥센타이어의 '엔블루 HD Plus' 제품이 장착된다. 스페인 팜플로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폴로' 신형은 디자인, 승차감, 안전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콤팩트 해치백 차종이다. 또한 신형 콤팩트 SUV 차량인 '티록'에도 '엔블루 HD Plus' 제품이 공급된다. '티록'은 2014년 제네바모터 쇼에서 콘셉트카로 첫선을 보였으며, 포르투갈 세투발 지역에서 생산된다. 두 차량에 장착되는 '엔블루 HD Plus'는 권위있는 자동차 전문 잡지에서 실시한 여름용 타이어 종합 성능 평가에서 주행 성능과 밀접히 연관되는 젖은 노면에서의 핸들링, 제동력, 수막 현상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바 있다.

## 넥센타이어, 글로벌 완성차에 신차용 타이어로 '엔블루 HD Plus' 제품 공급

넥센타이어가 스코다와 세아트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로 '엔블루(N'blue) HD Plus'를 공급한다고 9월 18일 밝혔다. '엔블루 HD Plus'는 최근 폭스바겐의 '폴로' 신형과 '티록'에도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되며, 독일의 권위있는 자동차 전문 잡지에서 실시한 여름용 타이어 종합 성능 평가에서 젖은 노면에서의 핸들링과 브레이킹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평가 받은 바 있다. 먼저, 체코의 완성차 업체인 스코다의 두 차량에 '엔블루 HD Plus'가 장착된다. 스코다의 플래그십이자 생산 차종 중 최상위 모델인 '수퍼브'와 대표 SUV 차량인 '예티'의 후속 모델인 '카록'에 공급된다. 또한, 스페인의 유일한 자동차 제조사인 세아트에도 '엔블루 HD Plus'가 공급된다. 세아트를 대표하는 스테디셀링 해치백 차종인 '이비자' 신형과 세아트 최초의 SUV 차종인 '아테카'에도 공급되며 이는 성장중인 유럽 SUV 시장을 겨냥한 차종이다.

## 美 ‘2017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USA’ 공식 후원

맨체스터 시티 FC의 공식 후원사인 넥센 타이어가 마케팅 강화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개최되는 축구 토너먼트 '2017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이하 ICC) USA'를 공식 후원했다. 이번 '2017 ICC USA'는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개최됐다.

넥센타이어는 '2017 ICC USA'의 공식 후원사로 모든 경기장에 설치된 LED 광고 보드를 통해 기업 브랜드를 노출했다. 또한 맨체스터 시티 경기의 선수 입장 게이트에도 넥센타이어 브랜드가 노출되었다. '2017 ICC USA'에 참가하는 맨체스터 시티의 공식 후원사로서 마케팅 효과는 더욱 컸다.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은 '2017년 ICC USA' 경기에서 넥센타이어 로고가 소매에 새겨진 유니폼을 최초로 입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넥센타이어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최초로 선수 유니폼 소매에 기업 로고를 노출하는 유니폼 브랜딩 후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많은 축구 팬들은 텍사스 휴스턴에서 7월 20일 예정된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간의 '맨체스터 더비(Derby, 가까운 지리적 근접성을 가진 두 라이벌 간의 경기)'를 기대했다. 1902년 첫 더비 이후 맨체스터 더비 역사에서 115년 만에 펼쳐지는 해외 경기였다.

넥센타이어는 미국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맨체스터 시티 여자 선수인 칼리 로이드(Carli Lloyd)와 맨체스터 시티의 전설적인 선수 폴 디코프(Paul Dickov)를 맨체스터 더비 시합에 초청하여 기념 촬영 및 사인회를 진행했다. 맨체스터 시티의 3경기가 열리는 동안 프로모션 부스를 설치해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제공했다.

넥센타이어 미국법인 권재구 전무는 “미국은 세계 최대 타이어 소비 시장으로, 이번 '2017 ICC USA' 공식 후원을 통해 미국 내 회사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7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4라운드 인제스피디움에서 개최

넥센타이어가 후원하는 '2017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4라운드가 7월 23일 인제군 인제스피디움에서 개최됐다.

4라운드에서는 스피드레이싱 경기뿐만 아니라 '인제바퀴축제 2017'과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22일에는 인제 시내 차 없는 거리에서 넥센 스피드레이싱 그리드 행사(경주용 자동차, 레이싱 모델과 함께하는 포토타임)와 현장 이벤트가 함께 진행됐다. 대회 당일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킷 체험 주행과 택시 체험 이벤트에는 20개 동호회에서 500여 대의 차량이 참여했으며, 대회 관람객을 대상으로는 그리드워크, 레이싱 모델 포토타임, 피트스톱 챌린지, 세발자전거 레이스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됐다.

또한 여름철을 맞아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어린이용 에어바운스 풀장을 운영하여, 개인 수영복 지참 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했다. 이외에도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타로카드 부스도 준비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됐다.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은 총 6라운드로 진행된다.



## 스포츠 마케팅으로 유럽 내 브랜드 파워 강화

넥센타이어가 유럽 지역 내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8월 14일 밝혔다. 먼저 넥센타이어는 지난 3월 '맨체스터 시티 FC(이하 맨시티)'와 2015년부터 이어온 파트너십을 연장하며, 영국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공식 슬리브 파트너'로 계약을 체결했다. 넥센타이어 브랜드는 2017-2018시즌부터 세 시즌 동안 맨시티 유니폼 소매 부분에 노출된다. 또한 넥센타이어는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소속 구단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공식 후원을 연장함으로써 이번 시즌에도 홈경기 A보드 광고 및 현장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선보일 계획이다. 더불어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Serie) A 'SSC 나폴리' 구단과도 A보드 광고 계약을 연장함으로써 유럽 곳곳에서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2018년 넥센타이어 신공장이 가동될 체코에서는 아이스하키팀 '믈라다볼레슬라프(BK MladaBoleslav)'에 대한 스폰서십을 지속하며, 9월부터 넥센타이어 브랜드가 선수들의 유니폼, 헬멧, 빙상 표면 등 홈구장 곳곳에 노출된다.







### ‘글로벌 고객만족도’ 타이어 부문 8년 연속 1위

넥센타이어가 “글로벌경영협회가 주관하는 ‘2017 글로벌 고객만족 역량 평가제도(이하 GCSI)’ 조사에서 타이어 부문 8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6월 30일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GCSI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 평가기관인 사단법인 글로벌경영협회가 글로벌 고객만족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 지표를 제공해 보다 수준 높은 고객만족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평가제도다. 이번 평가는 4월부터 3주간 서울시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10만 2500여 명으로, 평가 항목은 고객만족 요소, 고객 가치, 글로벌 역량, 충성도 등으로 구성됐다.

넥센타이어는 업계 최초로 타이어 렌탈서비스인 ‘넥스트레벨’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고객의 구매 선택의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안전운전을 위한 사후 타이어 정기 점검 및 차량 관리 서비스 등 지속적인 관리가 결합된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다.

또한 안전운전을 위해 고객의 과실에도 타이어를 교환해주는 ‘新 명품보증제도’를 최고급 제품인 ‘엔페라 AU5’와 ‘엔페라 RU5’에 도입함으로써 프리미엄 고객만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독일 스포츠카 제조사 포르쉐(Porsche)의 카이엔(Cayenne) 모델에 제품을 공급하여 넥센타이어의 품질과 기술력을 널리 알렸다.

올해 3월에는 미국 JD파워가 실시한 ‘2017년 신차용 타이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승용차 부문 2년 연속 4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외에서 제품의 품질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한편 2017 GCSI 인증식은 각 부문 1위 기업들이 모인 가운데 6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되었다.

### 프리미엄 타이어 ‘엔페라 AU7’ 출시 기념 고객 프로모션 실시

넥센타이어가 8월 7일 공식 출시한 고급 세단용 프리미엄 타이어 ‘엔페라(N’FERA) AU7’의 론칭을 기념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고객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두 달간 ‘엔페라 AU7’ 4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00% 당첨 이벤트, 100% 증정 이벤트, 친구 추천 이벤트 총 3가지로 구성되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1등(2명)에게는 넥센타이어가 공식 후원하는 ‘영국 맨체스터 시티 FC의 홈경기 초대권’을, 2등(5명)에게는 ‘S-Oil 100만 원 주유 상품권’을 증정한다. 3등(70명)에게는 ‘10만 원 주유 상품권’을 증정하며, 참여한 고객 전원에게 ‘5000원 주유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엔페라 AU7’ 구매자 전원에게 ‘CJ CGV 영화 예매권(5매)’을 증정한다. 이와 더불어 지인에게 ‘엔페라 AU7’을 소개하고 구매로 이어지면, ‘CJ CGV 영화 예매권(2매)’을 추가로 증정하는 친구 추천 이벤트도 진행한다.



### 넥센타이어, 8월 ‘이달의 히어로’ 캠페인 진행

넥센타이어가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와 함께 8월의 ‘이달의 히어로’ 캠페인을 8월 13일 진행했다.

넥센타이어가 진행하는 ‘이달의 히어로’ 캠페인은 숨은 시민 영웅들을 선정해 선행을 널리 알리고 격려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다.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송호영(19) 군과 최승빈(19) 군을 ‘이달의 히어로’로 선정해 시구·시타자로 초청했다. 지난 5월 대전 유성구의 동전노래방을

찾은 두 학생은 의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649만 원의 현금을 발견하여 곧장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돈 가방의 주인은 덕분에 잃어버린 돈을 찾게 되었고, 사례를 하겠다고 했지만 두 학생은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사례금을 거절했다. 넥센타이어는 이들의 용기 있는 선행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야구 경기의 시구·시타자로 초청하여 VIP 스카이박스를 제공하고, 100만 원 상당의 넥센타이어 타이어 교환권을 증정했다.







경험을 통한 고객 맞춤 서비스

# 타이어테크 서청주점



고급스럽고 깨끗한 공간, 친절하고 세련된 서비스, 믿을 수 있는 정품.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마련된 곳. 타이어테크 서청주점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글 김지혜 사진 이맹호



**정유식 점장** : 안녕하세요. 서청주점은 2015년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정직함과 친절함으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정훈 부점장** : 아침 8시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매장 정리정돈입니다. 바닥을 쓸고 닦고, 깔끔한 첫인상을 줄 수 있도록 못 매무새도 단정히 하죠. 매장의 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정준영 과장** : 고객 방문 시 차와 음료를 대접하며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부드러운 실내 분위기와 친절한 서비스는 타이어에 관한 원활한 상담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유식 점장** : 모든 직원은 명랑한 목소리와 밝고 환한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며, 고객이 점검을 받은 뒤 매장을 떠날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면 많은 고객이 좋았던 인상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세요.

함정훈  
부점장

정유식  
점장

정준영  
과장







**정준영 과장 :** 저희 매장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는데, 눈에 띄는 큰 현수막과 표지판을 세워 보다 많은 고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유식 점장 :** 앞으로도 고객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타이어테크 서청주점만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방문해주세요! 📞



**함정훈 부점장 :** 타이어 교체 시 모델명과 생산 날짜 등을 고객 눈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기 전 불안한 마음으로 운행하던 고객이 교체한 뒤에는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해하시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서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보람차고 뿌듯합니다.

**정유식 점장 :** 타이어는 고객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부품이에요. 저희 타이어테크 서청주점에 오시면 제 이름을 걸고 꼼꼼하게 작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준영 과장 :** 넥센타이어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좋은 품질의 타이어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무상 점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많이 알고 있지요.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향로 1  
문의 043-233-2202



# 넥센인의 특별한 여름휴가

## “안녕, 여름”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도 어느새 선선해진 바람 앞에 물러난 듯하다. 누구보다 멋지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위해 행복한 고민을 거듭했을 넥센인들의 휴가 모습은 어떠했을까? <헬로우 넥센>으로 보내준 추억이 담긴 사진과 사연들을 만나보자.

정리 김수진



### (창녕) TPM파트 김종호 대리

여름휴가 때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오토바이 천국이던 하노이에서 시클로를 타고 신나게 구시가지 구석구석을 누볐어요. 맛있는 음식과 이국적인 풍경까지! 베트남 여행, 넥센인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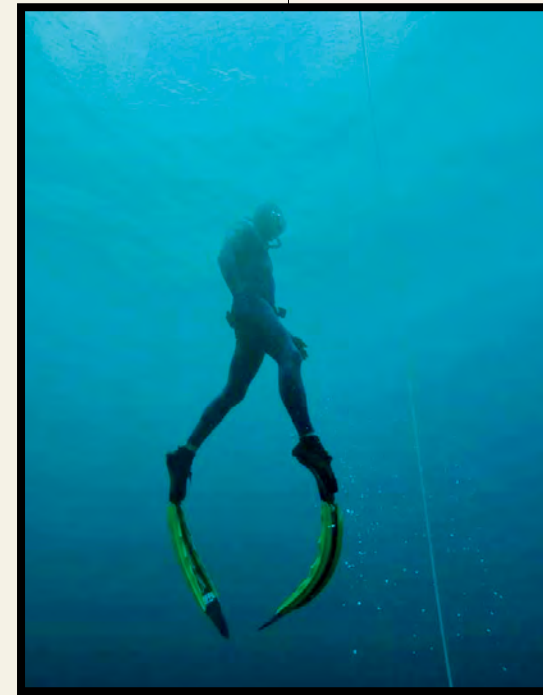
### (창녕) 생산기술팀 UF파트 최웅찬 직장

올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죠. 휴가 때 동생네 가족들과 청도 각북면에 위치한 계곡을 다녀왔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곳이라 그런지, 조용하고 한적하고 물도 무척 맑았어요. 계곡물이 차가워서 정작 몸을 담그지는 못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창녕) 금형파트 이승탁

제 여름휴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휴가가 될 듯합니다. 일본 후지산으로 산행을 다녀왔는데, 3776m 고지에서 바라본 일출은 정말 최고였어요. 고산병에 걸려 돌아오지 못할 뻔도 했지만, 다양한 추억을 안고 건강히 돌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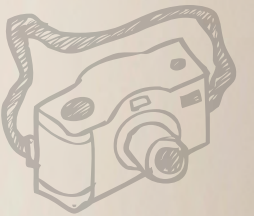
### 재고운영파트 김민중

‘내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실천하자.’ 제가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얻은 교훈입니다. 한 번의 호흡으로 수십 미터 바다 깊숙이 내려가는 스포츠지만, 그 짧은 몇 분 사이에 전 항상 내면의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제 한계를 넘어섰고(수심 41m) 강사 코스에 최종 합격했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계속할 겁니다.



### (창녕) 지원팀 박기덕

무더운 여름은 워터파크에서! 덕분에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 (창녕) 몰드샵 최지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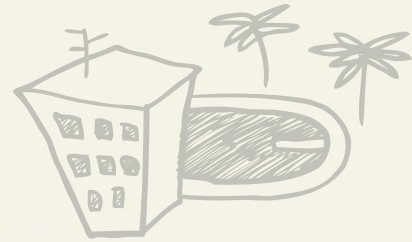
다정하게 사진을 찍은 주인공들은 바로 창녕공장 산악회 ‘yellow조’ 동료들입니다. 조별 산행으로 밀양 구만산을 다녀왔어요. 산행의 하이라이트는 역시나 시원한 구만폭포 입수! 더 추워지기 전에 다시 한 번 물놀이 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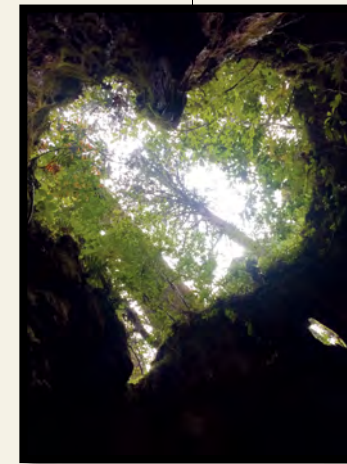
### IOP팀 김길성

파도를 타며 활짝 웃는 딸의 모습을 보니 절로 아빠 미소가 지어집니다. 맛집 탐방에 물놀이, 해변에서 한 모래놀이까지! 너무너무 즐거웠던 제주도 여행이었어요. 일상으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한 지금, 그때의 사진들을 보며 다시 힘을 냅니다. 파이팅!



### 인재개발팀 김주엽 대리

이번 여름휴가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특히 시원한 고척 스카이드롬에서 야구 경기를 보면서 넥센 히어로즈를 응원하고 온 것이 기억에 남네요.



### (창녕) 공무팀 신세명 과장

공무팀 특성상 여름휴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7월에 혼자 일본 야쿠시마를 방문했습니다. 야쿠시마는 애니메이션 <원령공주>의 배경이 된 섬으로, 섬 전체가 이끼로 덮여 있어 매우 신비로웠어요. 하트 모양인 월슨 그루터기에서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 특성연구팀 노국환

친한 동생들과 함께 간 대구 스파밸리 워터파크! 무더운 여름 시원한 물놀이와 재미있고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버블파티까지. 일상 속 스트레스를 날려버린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제품평가팀 이영남

먼 곳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물놀이를 자주 가자는 생각으로, 집 앞 황산체육공원에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신나게 놀고, 간식 먹고 또 놀고, 다음에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집에 올 수 있었네요. 승리야, 사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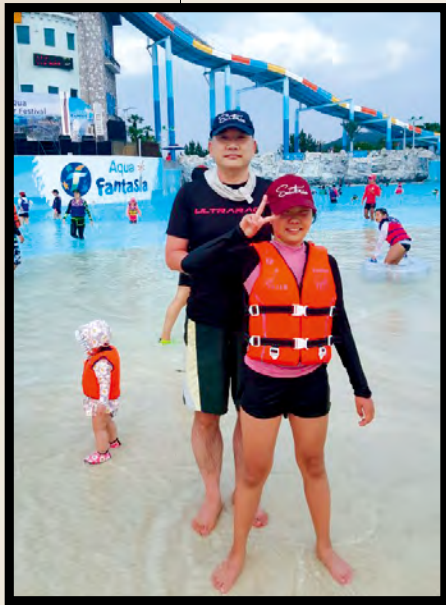


### 자금팀 최경은

저는 이번 휴가 때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장호항을 가봤어요. 동해 삼척에 위치한 장호항은 스노클링, 투명 카누 등을 즐기기에 좋은 동해 1등 관광지더라고요(엄지척). 물도 깊지 않고 깨끗해서, 다양한 물고기 구경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노클링을 했네요. 완전, 추천합니다.

Travel





#### 문화혁신팀 이재엽 팀장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휴가 내내 해수욕장으로, 워터파크로 물만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여쁜 공주님과 추억 만들기, 정말 행복했어요.



#### 인사팀 송명욱 과장

결혼 후 딸과 함께 간 두 번째 제주도 여행 사진입니다. 애월읍에서 멋진 석양과 함께 한 컷 찍어보았습니다. 제주도는 여러 번 가봤지만 갈 때마다 더 좋아지는 여행지인 것 같아요.



#### (창녕) 생산관리팀 이호섭

이번 여름휴가는 친구들과 2박 3일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카트, 사격, 스노클링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 중 찍은 수많은 사진 중에 협재해수욕장에서 뽕 뚫린 바다를 보며 찍은 사진을 <헬로우 빅센>에 공유합니다.



#### OE기술팀 안정우 과장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와 꼭 닮은 아들과 함께여서 행복한 휴가였습니다.



#### 재료연구팀 김혜정 주임연구원

여기는 스위스 바흐알프제입니다. 그림처럼 환상적인 풍경 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시간을 보내니 몸도 마음도 힐링되는 느낌이더라고요.



#### (창녕) 지원팀 김형근 대리

휴가 기간에 10월 해외여행을 위해 미루고 있던 아들 여권을 만들었어요. 생애 첫 여권과 함께 기대에 가득 찬 얼굴이 보이시나요? “아빠! 이제 놀러갈 수 있어요?”



#### (창녕) 생산관리팀 김호준 대리

결혼 후 사랑하는 아내와 첫 해외여행으로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도 한국처럼 덥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오전에는 여유롭게 쇼핑센터를 구경하고, 오후에는 마리나베이샌즈호텔, 공원 산책 등을 하며 보냈습니다.



# 사랑을 + 더하고 나눈 양로원 봉사활동

글 송준우(기업문화팀) 사진 권지영(기업문화팀)



무더운 초여름 날씨에도 넥센타이어 임직원들의 봉사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지난해월부터 시작된 CSR(사회공헌활동) 임직원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인 양산뿐 아니라 근교의 부산까지 영역을 넓혔다. 대한민국 제1의 항구 도시인 부산은 영화의 메카이기도 하다.

화려한 축제 이면에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았다.

우리 사회의 문제 중 하나인 인구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봉사활동은 부산 경로단 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했다. 봉사활동을 위해 모인 곳은 부산시 연제구, 경로당 각 1개소씩 선정했고 양산공장 근무자 총 16명이 참여했다.

점심식사를 준비하여 각 경로당을 방문하자 현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동네 어르신들이 환한 미소를 보이며 사우들을 반갑게 맞이해주시니 더욱 힘이 솟았다. 동시에 왜 우리가 이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사우들은 노후된 벽면 및 화단 도색 작업과 시설 내 청소를 했다. 입고 온 옷들이 더럽혀지는 것도 모른 채 사우들의 얼굴엔 즐거움이 가득했다. 그 누구도 싫은 내색 없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 다시금 우리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애사심이 생기기도 했다.

참사랑과 봉사의 의미를 깨우쳐준 소중한 넥센타이어의 봉사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㉞

참사랑과 봉사의 의미를 깨우쳐준 소중한 넥센타이어의 봉사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노구소 주민들, 고척돔의 히어로즈 되다

글 조병례 사진 이명호



넥센타이어가 자매결연을 맺은 노구소 마을 주민과 강림초등학교 학생 등 90여 명을 초청해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노구소 마을은 2011년 넥센타이어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다.

8월 3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를 보게 된 노구소 마을 주민들은 모처럼의 나들이에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 행사는 특히 노구소 마을의 강림초등학교 학생 23명과 교직원들이 참가해 더욱 뜻깊었다. 관중석에 앉은 주민들은 넥센타이어가 준비한 식사와 응원봉, 모자, 야구공을 지급받고 힘찬 응원을 시작했다. 나란히 앉아 응원을 펼치던 5학년 이호연, 손하정 학생은 “야구 경기를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라 신기하고 응원하는 것도 재밌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2회 말, 전광판에 특별한 메시지가 나타났다. ‘환영합니다! 강

림초등학교 학생 및 노구소 마을 여러분!’ 넥센 히어로즈를 응원하는 마음에 화답하듯 주민들을 환영하는 인사말이 등장한 것. 이를 발견한 주민들의 함성이 커졌고, 경기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응원 열기 역시 점점 더 달아올랐고, 결국 넥센 히어로즈는 10:0으로 SK 와이번스를 이겼다. 노구소 마을 전찬수 이장은 “올해로 네 번째 넥센타이어의 초청을 받아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어요. 관람할 때마다 넥센 히어로즈가 이겨서 무척 기쁘고, 우리가 마치 승리의 아이콘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넥센타이어에게 고마워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꾸준히 이어지면 좋겠습니다”라며 웃었다. 문화혁신팀 이재엽 팀장은 “즐거워하는 주민들을 보니 뿌듯합니다”라며, 자매결연을 통한 봉사활동을 넘어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칭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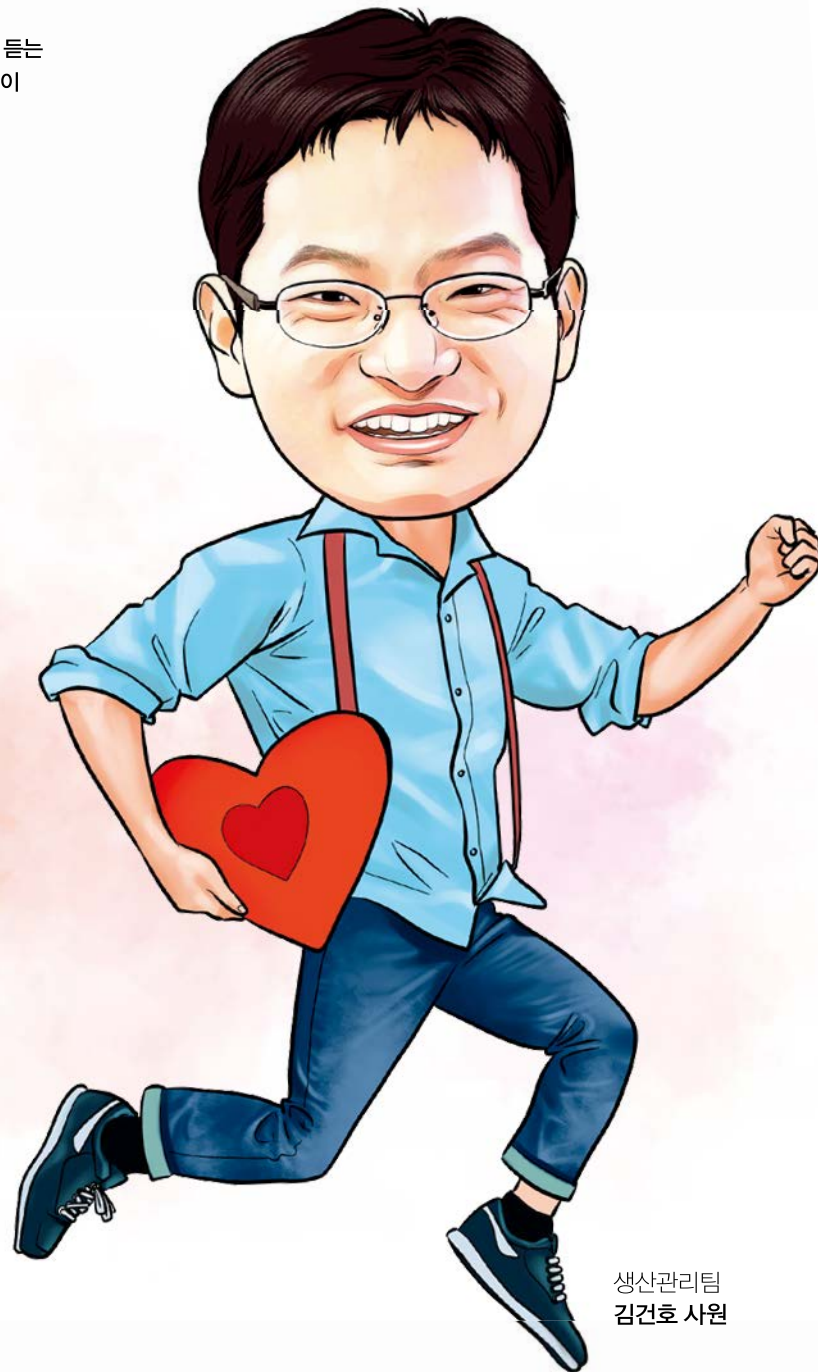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제목처럼 동료에게 듣는 칭찬은 힘든 업무 중에도 든든히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 머쓱해서 동료에게 직접 감사의 말을 건네지 못했다면, 〈헬로우 넥센〉지면을 통해 그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리 김수진

이토록 친절함, 이토록 멋진, 남자.

### 생산관리팀 정창환 사원에게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 업무 중에도 온화한 미소와 친절함 말투를 잃지 않는 정창환 사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정창환 사원은 매일 출근하면 동료들의 안부부터 물어보며 하루의 시작을 늘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업무가 많은 날에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 없으면 안 될 매우 든든한 동료이기도 하지요.



생산관리팀  
김건호 사원



생산관리팀  
정창환 사원

타 부서에 비해 저희 팀 인원이 적고, 각자 바쁜 사정으로 인해 족구 한 게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언제나 팀원들과 좋은 시간을 만들기 위해 모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도 정창환 사원이네요.

팀원들이 함께하는 일정이 정해지면 그 누구보다 먼저 모임 장소를 찾아가서 확인합니다. 옥천계곡에 있는 펜션을 확인한다고 해서 한번 따라가 봤는데,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길래 “이곳으로 이사 오려는 것 아니냐”며 농담을 할 정도였지요. 이러한 정창환 사원의 노력으로 1박 2일 야유회는 물론이고 볼링, 족구, 풋살, 스크린야구 등 동료들과 함께하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다음 업무를 진행할 원동력이 되어주는 정창환 사원~ 그동안 너무 고맙고, 지금도 멋지지만 앞으로 더 멋진 남자가 되길 바랄게!

● 생산관리팀 김건호 사원 보냄

「칭찬합니다」 코너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캐리커처 액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성이 모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넥센타이어는 오늘도 달립니다.



**T H I N K**

**T I R E**



## 전문가

선택과 집중.

우리를 글로벌 전문가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연구와 개발부터 생산 현장, 영업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빛나는 통찰력으로 성장합니다.

세계를 향해 가는 넥센타이어.

인고의 시간을 거쳐 완성된  
‘전문가다운’ 넥센타이어가  
바로 차세대 글로벌 마켓 리더입니다.

# EXPERT



# 목표는 전문가, 앞길을 밝혀줄 인생 격언

어떤 분야에서든 숙달되기 위해서는 하루 3시간, 10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 시간 동안 성장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우리를 전문가로 만들어준다. 베테랑이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주옥 같은 격언들을 모았다.

정리 조병례

내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다.

💡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 법학자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다음 자신이 무슨 업종에 종사하는지 만천하에 알려라. 만인에게 자신의 전문성을 알리는 것이 자신을 판매하는 가장 좋은 비법이다.

💡 랠프 로버츠, 기업가

자신의 방식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것, 이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점이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결점은 있다. 그들은 그 불리한 점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았을 뿐이다.

💡 시드니 프리드먼, 기업가

인생에서 우리가 할 일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계속 실패하는 것이다.

💡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작가

자신이 특별한 인재라는 자신감만큼 그 사람에게 유익하고 유일한 것은 없다.

💡 데일 카네기, 작가

위대한 인물은 배움의 기회를 주는 엄청난 실패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순간의 기쁨을 주는 엄청난 성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 멜러 쿨락, 작가

전문가란 거대한 오류에 휩쓸릴 때도 사소한 실수를 피하는 사람이다.

💡 벤저민 스톨버그, 언론인

오로지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일에 도전하라. 도전하는 자만이 승리의 월계관을 쓸 자격이 주어진다.

💡 클레멘트 스톤, 기업가



## 소박해? 새로워! 취미를 날개로 만든 사람들

무명의 만화가 고우영은 1972년 <임꺽정>을 '일간스포츠'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러곤 곧장 꿈에 그리던 브로우닝 5연발 사냥총을 샀다. 싼값 걱정을 덜자 곧바로 취미에 매달린 그를 타박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사냥, 낚시, 골프, 여행 등 갖가지 분야에서 선구적인 취미인으로 살았다. 그것은 그가 수십 년 동안 예리한 감각으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긴 창의력의 원천이 되었다. 취미는 본업에 얽매어 있는 우리의 관심을 흔든다. 낯선 분야를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극을 얻는다. 때론 새로운 직업의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

글 이명석(칼럼니스트)

Writer

### 똑딱똑딱 가구 만드는 배우, 이천희

드라마 <주군의 태양> <너를 기억해>의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 이천희. 그런데 그는 카메라 앞에서 만큼이나 목공소 안에서 빛을 뿜어낸다. 어릴 때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나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아버지는 한옥 학교를 다닌 뒤 동네 정자를 세웠다. 등가구 선생님이었던 어머니의 어깨너머로도 많은 걸 보았다. 그런 그가 자신의 뽀족한 옥탑방에 맞는 가구가 없자, 직접 톱과 망치를 들고 가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제는 경력 15년을 훌쩍 넘긴 베테랑 목수로, 건축을 전공한 동생과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 가구 사업을 벌이게 되었다. 목공 취미를 더욱 부추긴 건 또 다른 취미인 캠핑이었다. 그의 대표작인 캐리어 테이블은 박스에 캠핑용품들을 넣고 다니다 나무 상판만 올리면 테이블로 변신한다. 그는 이 즐거움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데도 열심이다.

출처 이천희 인스타그램  
@chuny012



### 밀리터리 마니아에서 전쟁 소설가로, 톰 클랜시

톰 클랜시는 어릴 때부터 전쟁, 총, 탱크, 잠수함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밀리터리 마니아였다. 직업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시력이 나빠 ROTC 지원에 탈락하고 말았다. 보험설계사를 직업으로 삼고 일과 후에 전쟁 자료를 모으던 그의 눈에 특히 거슬리는 게 있었다. 전쟁 소설들이 너무 어설픈 상식으로 무기와 전략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 '차라리 내가 쓰는 게 낫겠어.' 이렇게 쓴 소설이 바로 손 코너리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진 <붉은 10월>. 소련의 핵잠수함 함장이 미국에 망명하는 과정을 그렸는데, 잠수함 내부는 물론 미소 양국의 전술적 움직임까지 놀랍도록 정교하게 표현해냈다. 이어 나온 책들은 군사 외교 분야 전문가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고르바초프와의 군비 감축 협상에 앞서 <붉은 폭풍>을 읽고 사전 정보를 파악했다고 한다.





## 소설의 대가지만 진짜 재미는 나비,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소설 <볼리타>의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여러모로 놀라운 사람이다. 그는 러시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볼셰비키 혁명으로 망명객 신세가 되었고, 그가 폄하했던 ‘이류 언어’인 영어로 소설을 썼다. 그런데 그 작품이 20세기 영어 소설 100권(Modern Library 100 Best Novels) 중 4위로 뽑혔다. 문학가로 살았던 그가 가장 즐거워한 일은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나비를 채집하고 연구하는 일이었다. “만약 소설을 쓰지 않았다면 나비 연구가가 되었을 거다.” 나보코프는 아마추어 나비 연구자로 업적을 쌓았고, 특히 남아메리카 오지에 사는 ‘블루’라는 나비 종족의 연구에 특별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버드대학교 비교동물학 박물관에서는 그를 학예연구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어쩌면 그는 조국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신세를 나비의 모습과 겹쳐 보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 메이크업 크리에이터로 다시 태어난 개그맨, 김기수



쑥쑥 벌어지는 다리로 멋진 춤을 보여주던 <개그콘서트>의 댄서 김이 돌아왔다.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메이크업을 하고, 그 기술을 유튜브로 알려주는 뷰티 크리에이터 김기수다. 그가 이런 취미에 발을 디딘 것은 30년이 넘었다. 아역 배우로 활동하며 크림을 발랐는데, 얼굴빛이 환해지는 게 너무 신기했다는 것. 그러나 ‘화장하는 남자’는 한국 사회에서 환영받는 모습이 아니었고, 그는 혼자만의 취미로 삼았다. 그런데 메이크업을 하고 DJ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단 악성 댓글이 그를 움직였다. ‘이런 편견들과 정면 승부하자.’ 그는 자신의 취미를 공개하고 메이크업 기술을 알려주는 뷰티 크리에이터로 변신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누적 조회수 7000만 뷰에 이르렀고, 오락 채널 TRENDY의 <스타일 뷰티> MC 자리가 찾아왔다. 세상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취미를 파고들어간 시간이 결실을 얻은 것이다.

## 취미로 모은 운동화가 초대박 사업, 킥스

취미가 만들어내는 인생 역전에는 나이도, 학벌도 중요하지 않다. ‘킥스(Kickz)’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벤저민 카펠루쉬닉은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17세 소년이다. 중학교 시절 엄마가 선물한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갔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진 걸 깨달았다.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돼 운동화를 사 모았는데, 부모는 이 취미에 더 이상 돈을 대주려 하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운동화를 되팔면서 조금씩 수익이 생겼고, 르브론 XMVP 농구화를 400달러에 사서 4000달러에 팔기도 했다. 이쯤 되니 웹 사이트를 만들어 본격적인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킥스는 유명 DJ, 힙합 아티스트와 어울리게 되었고, 그들이 보내주는 전용 비행기를 타고 운동화를 배달하는 장면을 SNS에 올려 더 큰 관심을 모았다. 이제는 킥스 때문에 운동화 수집이 새로운 붐을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출처 벤저민 카펠루쉬닉 인스타그램 @benjaminkickz

## 슬럼프 겪는 직장인에서 롱보드 여신으로, 고효주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나비처럼 부드럽게 롱보드를 타는 여성의 동영상 본 적 있는가? 그 주인공은 2015년부터 입소문을 타고 알려져 ‘롱보드 여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고효주다.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그녀의 롱보드는 ‘남들 다 하는’ 취미에 불과했다. 원래는 대기업 UI 디자이너였는데 슬럼프에 빠져 주말에 할 수 있는 취미로 도전한 것이 롱보드였다. 배우는 과정은 남들보다 느렸지만 복잡하거나 화려한 테크닉 없이 편안하고 부드럽게 보드를 타는 모습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유명세를 얻자 이 취미를 새로운 직업으로 삼아보자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롱보드 여행’을 떠났고, 유튜브 채널을 열고 롱보드 라이더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홍콩관광청의 페스티벌 홍보 영상, 세계적인 EDM그룹 앞의 뮤직비디오 모델 등 자신에게 쏟아지는 주목을 즐기고 있다. ㉮





# 전문성이 나의 미래를 바꾼다

옥스퍼드대학교의 한 연구실에서 발표한 '직업의 미래'라는 논문 따르면 '2040년 이전에 현재 직업군의 47%가 컴퓨터로 대체될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부터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어가 생겨나더니 인공지능이 머지않아 우리의 직업을 빼앗아갈 거라는 위협적인 이야기도 나돌기 시작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시간까지 언급하며 어떤 직업 혹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가를 예측했는데, 스타크래프트 게임은 6년 후, 레고 조립은 8년 후, 트럭 운전은 12년 후라고 한다.

글 박이연(《직장학교》저자)



## 인공지능 시대와 전문성

당신이 사회 초년생이라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경력에 '안전'할까에 대해 고민할 것이고, 40대의 숙련된 회원이라 해도 현재까지 쌓아온 전문성을 언제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다.

제조업 분야는 자동화 도입이 빠른 편이기에 더 그렇다. 더구나 공정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한국의 제조업은 로봇 도입률이 이미 세계 상위권이니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현재 설치돼 있는 자동화 라인만이 아니라 기존에는 사람만 할 수 있었던 비정형화된 업무를 기계가 대체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면 한편으로 섬뜩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울하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대화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울고 웃으며 함께 살아가는 동료의 의미가 어떤 방향으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월급이나 직업이 주는 혜택은 물론이고, 출근해서 얻어가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일 텐데, 그 사람다움의 정서가 사라진다면 좀 우울한 일이다.

게다가 당신이 부모라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지 고민될 것이다. 유치원생들도 코딩을 배우는 시대다. 창의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도, 앞으로는 예술 같은 창작 활동이 각광받는다는 말도 나온다. 어떤 새로운 교육 방식을 아이에게 제공하는가도 고민이지만, 부모로서 '정답'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골치 아프다. 지금 부모 세대는 시험 점수와 전공 과목과 자격증으로 어느 정도 인생 설계가 가능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정답지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 직접 답을 찾는 지식 집시가 되자

직장인과 직업에 대한 글을 쓰는 필자의 본업은 마케팅이다. 제품을 만들고 광고하고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지난 20여 년간 하고 있다. 이 일이 좋아서 막연히 시작했다가 경력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싶어 유학을 했지만 요새는 그마저도 별 의미가 없어진 느낌이다. 인터넷 때문에 마케팅 지식이 20년 전처럼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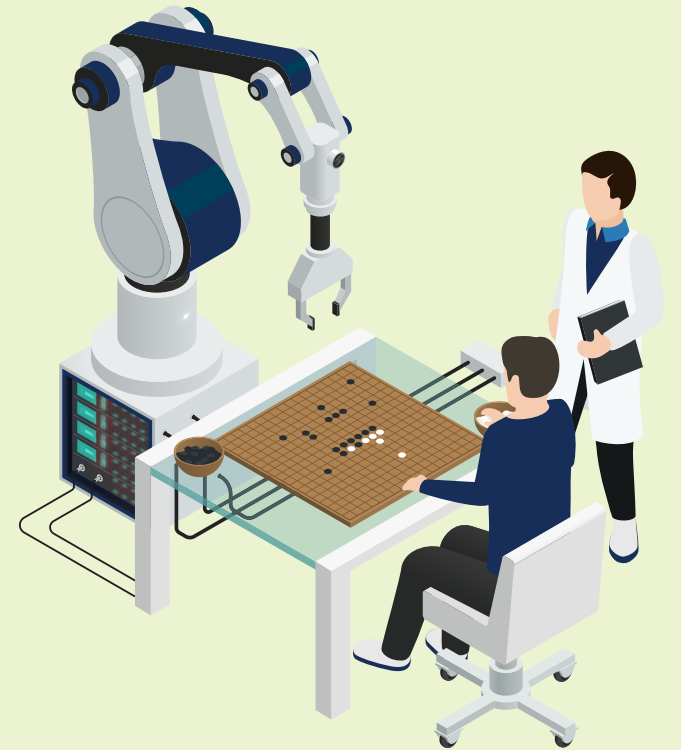
여느 업종과 마찬가지로 마케팅 분야에서도 기술혁신은 많은 위협을 만들고 있다. 그중 하나는 디지털 미디어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마케팅 믹스 가운데 작은 부분만 차지하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판촉은, 디지털 미디어를 모르면서 마케팅을 한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일 정도로 이젠 본류가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마케팅에서의 전문성이란 무엇일까. 디지털 미디어를 ‘마스터’해야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어느 수준의 지식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일까?

필자 역시 그 답을 찾으려 매일 노력하는 직장인으로서 공부하고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난다.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업계 사람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 갔다. 인공지능이 디지털 광고를 사고파는 최신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다. 패널 토론을 하던 3명의 연사는 업계에서 제일 잘나간다는 디지털 미디어 회사 임원들이었는데, 그중 어느 누구도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에서 신기술 출현이란 말 그대로 매일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떻게 ‘전문가’가 되었을까? 답은 뻔했지만 흥미로웠다. 혼자서 매일 배웠다는 거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들이 어떻게 매일 배울 수 있었는가에 있다. 어떻게 그들은 제대로 된 책도, 커리큘럼도, 교육 체계도, 자격증도 없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었을까? 알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궁금하면 직접 답을 찾아 헤매는 지식 집시의 DNA가 있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이라는 진부한 당위가 아니라, 매일 직면하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걸 찾아내고 배우는 습관이 그들을 전문가로 만들었다.



### 호기심에서 탄생하는 전문가

인공지능이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논문들은 그저 논문일 뿐이다. 그 일반화 속에 함몰되면 직장인은 현실적인 답을 얻을 수 없다. 당장 내 업무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고, 그 답을 가장 잘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스스로의 호기심을 잘 받아들여 실천만 한다면 말이다.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 그게 쉽지만은 않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낡은 시대의 직업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학벌을 한번 ‘파내면’ 인생의 디자인이 끝난다고 배웠고, 한번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좋은 경력이 보장된다는 잘못된 정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만들어주는 지식이란 것을 졸업장과 자격증 안에 박제시켜놓은 사회 풍토 때문이다. 그래서 강한 호기심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사람이 드물다.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불안함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큰 스트레스가 아니다. 새로운 것, 변화하는 것 자체를 즐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늘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는다. 내일 배우면 되니까.

당신이 호기심에 충실하다면 프로젝트가 매일 저절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추진하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많이 돌아갈수록 당신의 배움은 증폭되고, 당신의 전문성은 저절로 배가된다. 당신의 호기심을 자랑스러워하고 표출하여 매일의 배움으로 실천한다면 인공지능 시대에도 전문가의 길은 넓게 열려 있다. 당신 혼자 모든 숙제를 할 필요는 없다. 동료와 함께 직업이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들의 호기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야기해보고, 지금 하는 업무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 ㉞





과학탐험가 문경수

# 누구나 탐험가를 꿈꾼다

다짜고짜 당신에게 제주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냐고 묻는다면, 어떤 답변을 내놓을 텐가? 한라산이 있는 곳? 바다가 아름다운 섬? 한국인보다 외국인 여행객이 더 많다는 것? 많은 사람이 사랑해 마지않는 제주도지만 정작 그 속내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제주도를 탐험하겠다는 사람이 TV에 출연했을 때 시청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지?’ JTBC <효리네 민박>에 등장한 과학탐험대 문경수 대장 이야기다.

글 조병례 사진 이맹호

## 제주도 누비던 그 사람

톱스타 이효리의 제주도 자택에서 민박이라니, 대중의 관심은 뜨거울 수밖에 없었다. 어떤 인물들이 그 기회를 잡았는지도 관심사였다. 6월부터 방송이 시작됐고, 과학탐험대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두 번째 민박객, 어색해하는 모습이 예능 프로그램과 거리가 먼 듯싶더니, 이들이 보여주는 풍경도 심상치 않았다. 효돈천, 주상절리 등 이름조차 생소하거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주도의 명소들이 새롭게 다가왔다. 별의 생성과 소멸, 블랙홀의 신비까지 밝힐 수 있는 전파망원경은 방송 이후 전파천문대에서 가까이 보고 싶다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행기로 가는 데만 10시간 넘게 걸리는 서호주를 비롯해 알래스카, 몽골 등 세계를 누벼온 문경수 대장이지만 그조차도 제주도를 제대로 탐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쁜 일정으로 지쳐 있던 중 ‘머리를 식힐 겸’ 신청했던 방송 출연이 의미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다큐멘터리가 아닌 예능 프로그램인지라 탐사 모습을 상세히 다룬 것은 아니었지만, 각 장소가 어떤 곳인지 핵심은 노출된 만큼 문 대장은 만족한다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지금과 같은 관심을



우연한 발견이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탐험의  
새로운 정의라 생각해요.



지속시키고 더 많은 사람이 제주도의 가치를 이해하게 하는 일이다.  
문경수 대장은 ‘과학탐험가’다. 그의 책 <35억 년 전 세상 그대로>나 강연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질학, 천문학, 우주생물학 등 여러 분야의 과학을  
아우른다. 이러한 행보는 그 자신도 예상치 못한 데서 출발했다. “졸업  
후 프로그래머로 근무했던 IT 회사에서 아리랑 인공위성 관제 시스템을  
제작했어요. 우리가 만든 관제 시스템을 탑재한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시그널과 이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제 역할은 작았지만 그 과정을 가까이서  
보며 지내던 어느 날 우주가 가슴속으로 훑 들어온 거죠.” 산책을 하다 문득  
올려다본 하늘이 다르게 보이고 궁금한 것들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혼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자 함께 공부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책에서  
말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야 알겠다’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 미래를 바꾼 서호주

첫 목적지는 ‘불모의 땅’ 서호주였다. 오지에 가까운 탐험 장소라 자료를  
얻기도 힘들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곳이었다. 지구에 생명체를 있게 한  
‘산소’의 생성이 35억 년 전 이곳에서 시작됐고, 산소를 만드는 미생물이  
지금도 활발히 광합성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구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엄청난 이정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식물만이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고등 생명체를 있게 한 것은  
바로 산소를 생성하는 ‘시아노박테리아’다. 이 박테리아가 사는 바위,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서호주의 샤크 만은 지구 형성 초기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바닷속에서 스노클링을  
하며 살펴보면 미생물이 만든 산소가 뿜어져 나오는 걸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첫 번째 탐험을 무사히 마치자 그들의 행보는 1년에 한 번씩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지구상의 장소들을 찾아가는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당시 잡지  
<과학동아> 기자 신분이었던 그가 가장 활발히 정보를 수집하고 탐험대  
운영을 맡았다. 취미로 시작한 일에 익숙해지면서 앞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서호주 탐험대 모집 공고를 내자 100여 명이 모인 거예요.  
선발대로 호주로 가는 마음이 여느 때와는 달랐죠.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진 채  
더 깊은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었어요.” 그 결과는 예기치 못하게,  
문 대장의 인생을 바꾼 조난기로 이어졌다.



### 우연한 발견, 탐험의 새 정의

<효리네 민박>에 함께 등장한 전재영 씨와 떠난 탐험.  
인적이라곤 찾을 수 없는 사막에서 자동차가 웅덩이에 빠져  
움짱달썩할 수 없었고 GPS는 수명을 다했다. 밤하늘을  
보며 방향을 잡고 걷다 탈진한 채로 수십 킬로미터를  
되돌아와야 했고, 야생 들개의 공격을 받을까 두려움에  
떨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이 사건은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극한 상황에서도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의  
바오밥나무 한 그루, 커다란 개미집 하나, 반짝이는 밤하늘이  
마음에 각인된 것. 모든 풍경이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이런 풍경을 잡지 기사로만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어요. 과학은 이렇게나 다이내믹한 분야인데 대중이  
접하는 과학은 한 점에 불과해요. 탐험이라는 행위를 과학을  
전달하는 새로운 채널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여기에  
문경수 대장만의 특별한 커리어가 더해진 것은 2010년  
우연한 기회에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서호주 탐험대에  
합류하면서다. 초기 지구의 모습, 화성과 흡사한 환경 등  
서호주의 매력은 무궁무진했다.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함께 탐험을 했고 더욱 깊이 있는

데이터가 쌓였다. 그렇게 그는 자타공인 ‘과학탐험 전문가’가  
됐다.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과 대전 지질박물관에 가면  
문 대장이 서호주에서 수집해 기증한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을 볼 수 있다. 이렇듯 그는 탐험을 통해 얻은 샘플,  
사진, 글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과학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2013년부터는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보다 생생한 과학 이야기를 대중에게 소개한다.  
강연, 전시물·다큐멘터리 제작 참여뿐 아니라,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탐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현재 그는 제주도의 과학에 대해 집필  
중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제주의 진면목을 과학적인  
시선으로 보고 쓴다.  
“사람들은 늘 탐험을 꿈꿔요. 현실에 억눌려 있을 뿐이죠.  
탐험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기 힘들다면 주변을  
둘러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연한 발견이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과학적인 발견이 아니면 어때요?  
그게 이 시대에 맞는 탐험의 새로운 정의라 생각해요.”  
나를 바꿀 우연한 발견을 찾아나설 때다. ❷





창녕공장 가류파트

# 타이어의 완성을 책임진다

넥센타이어가 만들어지는 수많은 제조 공정 중 가장  
마지막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완성된  
넥센타이어를 제일 먼저 만나는 팀은 어디일까  
궁금했다. 타이어의 마지막 공정이 완성되는 곳,  
창녕공장 가류파트를 찾아 궁금증을 해결했다.

글 김혜진 사진 이맹호

## 타이어의 최종 형태가 결정되는 곳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창녕공장 가류  
파트 내부로 들어가니 뜨거운 기운이 느  
껴졌다. “더우시죠? 가류 공정은 온도가  
중요해요.” 안내를 도와준 이창호 대리  
가 가류 공정의 3요소는 시간, 온도, 압력  
이라고 알려준다. “가류파트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라는 질문에 우성볼 조장  
이 대답했다. “넥센타이어의 완성을 책임  
지는 곳이지요.”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련, 반제품, 성형, 가류 등의 여러 세부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중 가류 공정은





온도와 압력을 가해서 완제품 타이어를 만들어내는 마지막 제조 공정이다. 가류 공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어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근속 29년 차 이문호 파트장은 가류파트 팀원들은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관리할 세부 공정이 많은 편이에요. 설비와 공정이 많다 보니 관리하기 까다로운 면이 조금 있습니다. 창녕공장 가류파트에는 우리 D조 말고도 시프트조인 A, B, C조가 있어요. 시프트조와 주간조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류 공정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 압력, 시간, 온도를 잘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작은 수치에 불과하지만 잘못 입력하여 기계가 가동되었을 때는 전혀 다른 특성의 타이어가 만들어진다. 창녕공장 가류파트 D조의 3년 차 막내 김승연 사원, 6년 차 동기인 우종근 사원과 황상건 사원, 5년 차 이창호 대리, 7년 차 우성불 조장,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23년 차 정상복 직장장과 입사 29년 차 이문호 파트장이 각자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내면 비로소 완성된 타이어가 모습을 드러낸다.

### 아이디어 톡톡 튀는 ‘유형 제안’ 우수 부서

“우리 팀은 ‘유형 제안’ 우수 부서예요. 그중에서도 우성불 조장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아주 많이 냈어요.” 정상복 직장장이 우성불 조장의 아이디어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칭찬한다.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제안은 유형 제안이며, 금전적 이득은 되지 않지만 작업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면 무형 제안에 속한다. 가류파트는 유형 제안 우수 부서이고, 우성불 조장은 제안왕이다.

“설비 개선이나 환경 개선 등의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채택되어 재정적으로 절약되고, 근무자들의 업무 환경도 좋아지는 걸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안왕이라고 회사에서 상금을 줘서 부부동반 여행도 다녀왔어요.”

가류파트는 유형 제안 우수 부서다 보니 상금도 여러 번 받았다고 한다. “제일 보람될 때는 상금 받아서 회식할 때”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답하는 팀원들은 팀워크의 비결도 회식이라고 한다. “회식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D조끼리뿐만 아니라 시프트조도 다 같

이 회식을 자주 해요. 허심탄회하게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팀 내 분위기도 좋아지고 어떤 부분이 힘든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서로의 장점 완벽 파악!

남자들만 있는 팀이어서 팀원들끼리 서로 칭찬을 주고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릴레이 칭찬’을 제안했다. 예상과 달리 칭찬이 술술 나왔다. 서로의 장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이문호 파트장은 우종근 사원을 지목했다. “완제품 수리 공정을 담당하는 친구데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요. 딱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아직 장가를 못 갔다는 것?(웃음)” 바통을 이어받은 우종근 사원은 “정상복 직장님이 해결사세요. 불만사항도 잘 들어주시고, 저희가 말하기 꺼끄러운 부분은 앞장서서 총대를 매주세요.”

정상복 직장은 우종불 조장을 칭찬했다. “우 조장이 낸 아

이디어로 근무 환경이 많이 개선됐어요. 아이디어만 좋은 게 아니라 밑의 직원들도 잘 이끌어주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우성불 조장은 막내를 가리켰다. “우리 막내 승연이가 아직 어려도 꾀부리는 일 없이 성실합니다. 회식 때 술도 잘 마셔서 더 예쁘고.” 김승연 사원은 선배인 황상건 사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황상건 선배님에게 늘 감사해요. 제가 막내라 모르는 게 많은데 매번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세요.” 황상건 사원은 이창호 대리를 지목했다. “중간관리자가 참 힘든 일인 걸 아는데 균형을 잘 잡아서 우리 파트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들이란 편견을 깨고 훈훈한 분위기로 릴레이 칭찬을 마친 후 이문호 파트장이 말을 덧붙였다.

“사보를 통해 서울사무소와 양산공장, 창녕공장 등 모든 임직원들이 이어지는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고, 유대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로 활약해주길 바랍니다.”<sup>10</sup>

## 한 줄 톡톡



이문호 파트장

★  
안전이 최고니 부디 모두 안전하게 작업해주길. 개인적으로 올해 목표는 다이어트!



정상복 직장

★  
정년퇴직 전에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금상 받는 것이 목표!



우성불 조장

★  
넥센의 중심은 가류파트!



이창호 대리

★  
올해 안에 가류파트의 모든 업무를 마스터하자!



우종근 사원

★  
우리 팀 모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삽시다.



황상건 사원

★  
다들 다치지 말고 건강했으면!!



김승연 사원

★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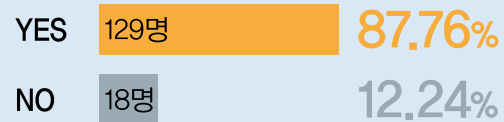
# 자기 계발 어떻게 하고 있나요?

2017년 8월 16~19일, 총 147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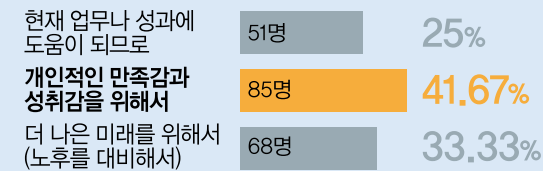
일하며 공부하는 직장인을 우리는 '셀러던트(Saladent)'라고 부릅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업무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아가는 이들을 일컫는 신조어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자기 계발. 넥센인들은 과연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정리 김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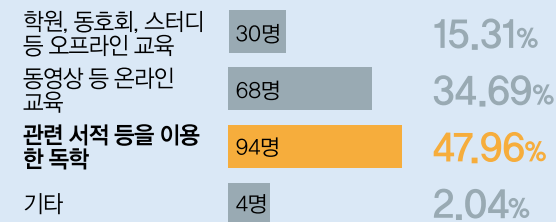
Q 지금 자기 계발을 하고 있습니까?



Q 자기 계발을 하고 있거나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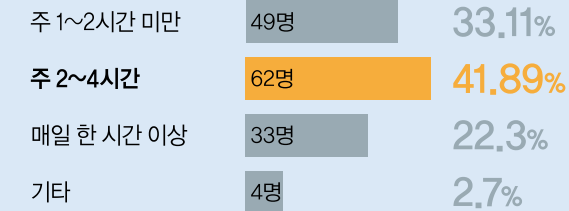
Q 자기 계발은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나요?(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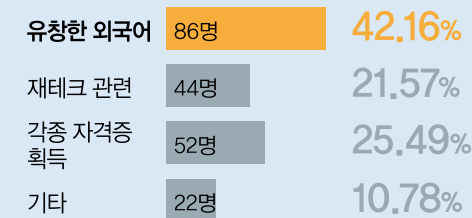
\* 지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들으며 계발하고 있습니다. • 박영선



Q 자기 계발을 위해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은?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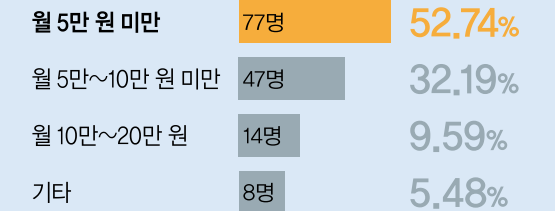
Q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자기 계발은?(복수응답)



- \* 회사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습니다. • 김성문
- \* 탁구, 볼링, 골프, 검도 등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네요. • 김병갑
- \* 미용 관련 자격증이나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서 열심히 독학 중입니다. • 최경은
- \* 마음 공부는 물론이거니와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 강용구
- \* 비록 '운동치'지만, 탁구와 족구를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연습하려고 합니다. • 김건호



Q 자기 계발을 위해 한달에 투자하거나 했던 비용은?



Q '자기 계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 \*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어떤 분야든 추천~! • 최중수
- \* '자기 계발'은 개인의 '행복'이자 기업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도연
- \* 100세 시대, 준비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 송준우
- \* 회사 생활만 위한 자기 계발보다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자기 계발이 중요합니다. • 김광수
- \* 목적성을 가지기보다, 특정 목적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 방법으로 자기 계발이 활용된다면 더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 김병갑
- \* 자기 계발을 통한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시병진
- \* 기회란 꿈꾸는 자의 것이다. 준비된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 항상 준비하고 꾸준히 자기 계발에 도전하라. • 김상수
- \* 자기에 대한 도전은 끝이 없는것 같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도전. 무엇이든 해보세요. • 최지웅
- \* 전문 교육을 받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매우 보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김인식
- \* 단순히 생각해서 무엇이든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기 계발 아닐까요? • 이상영





## 깊이 있게 한 분야의 전문가 되기



## 여러 방면 얇게 잡학다식 되기

인간의 알고자 하는 욕심과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자 하는 욕심은 끝이 없다. 갈수록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분야를 파고들 것인가, 여러 분야를 넓고 얇게 배울 것인가 고민이 된다. 이 중 나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글 우용표(더 코칭 & 컴퍼니 대표)



‘지대넓얏’(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이라는 팟캐스트가 화제에 오른 적이 있다. 철학,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패널들이 여러 방향으로 접근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방식이다. 최근 ‘먹방’, ‘국방’ 일색이던 TV 프로그램에서도 지식 열풍이 이어졌다. 인문학 또는 과학 지식과 시사 상식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프로그램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과 <밝히는 과학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지식의 향연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자기 계발 의지가 한껏 높아지고 있다. 이때 고민되는 것이 바로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전문가 되기’일 것인가, 아니면 ‘여러 분야를 섭렵하여 다재다능한 인재 되기’일 것인가의 선택이다. 정답은 없다. 다만 고려해야 할 몇 가지가 있을 뿐이다.

## 깊이 있게 한 분야의 전문가 되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여러 분야에 손을 댔다간 시간만 낭비하고 이도 저도 아니게 되어버리고 만다. 오직 한 분야만 파고들 고집이 있다면 전문가를 꿈꾸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 전문가 되기의 장점

#### 발언권이 강해진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권위’를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내릴 때 환자가 그 의견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질병과 치료 분야는 환자보다 의사가 더 많이 공부했고 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직장도 비슷하다.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지식을 쌓으면 회의, 업무 처리에서 권위와 발언권이 강해진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진다는 것.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일이다.

#### 주요 인재가 된다

회사에 계속 모셔두고 싶은 주요 인재가 된다. 회사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과연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회사는 필요한 인재라면 높은 급여를 지급하거나 직급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최대한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전문 분야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급여와 직위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직장인이 겪는 해고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 은퇴를 늦출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전문가를 그냥 두지 않는다. 현재의 업무에서 최고 위치에 오른다면 정년 이후에도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학위를 받으면 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종 집필과 강의를 제안받고 칼럼 작성을 의뢰받거나, 박사학위가 있다면 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아주 효율적인 은퇴 준비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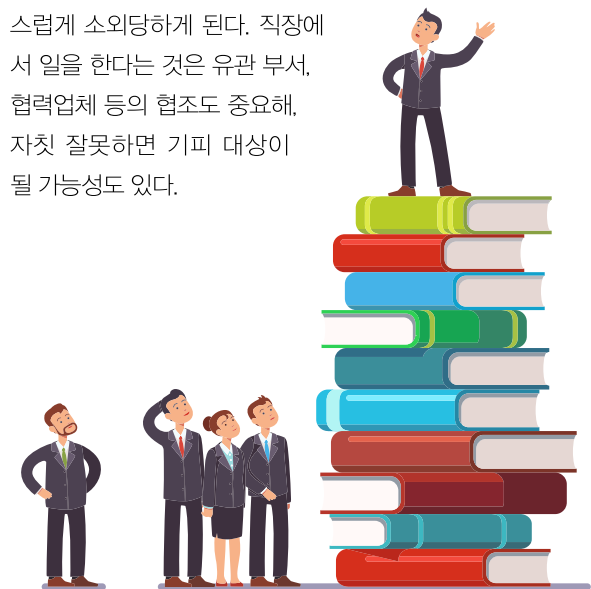
### 전문가 되기의 단점

#### 트렌드는 변한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완성되는 시점에 정작 그 분야가 필요 없어진다면 난감한 일이다.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 ‘삐삐’, ‘시티폰’ 등이 있었다. 당시엔 최첨단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달이 빨라 전문가가 있더라도 크게 환영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질 때 앞으로 20~30년 후에도 이 분야가 계속 존재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 직장 내 외톨이가 될 수 있다

한 분야에 정통하면 해당 분야에 대해 자신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저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한다’라는 인상을 주면 자연스레 소외당하게 된다.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유관 부서, 협력업체 등의 협조도 중요해, 자칫 잘못하면 기피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 여러 방면 알게 잡학다식 되기

한 분야만 깊게 파고들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다. 한 가지 영역이 아닌 여러 영역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 셋이 더 좋다. 가짓수를 늘려 자신의 이력을 관리해보자.

### 잡학다식의 장점

#### 능동적인 이력 관리가 가능하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다.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 있다면 이력 관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다재다능하고 여러 경험을 거쳤다면 자신이 원하는 부서 또는 업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영어만 할 수 있는 사람과 영어와 일본어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선택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공학을 전공한 과학자가 경영학과 경제학까지 잘 안다면 어떨까. 기업은 기업 운영에 대한 여러 측면을 경험한 인재를 계속 붙잡을 수밖에 없다.

#### 각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통섭(統攝)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통섭은 각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한꺼번에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생산도 잘 안다면 고객과 상담할 때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신모델의 특성은 무엇이고, 납기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고객에게 막힘없이 대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다재다능한 인재는 각 분야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한꺼번에 여러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Multi-tasking)도 다재다능한 사람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 잡학다식의 단점

#### 얕은 수준의 지식은 위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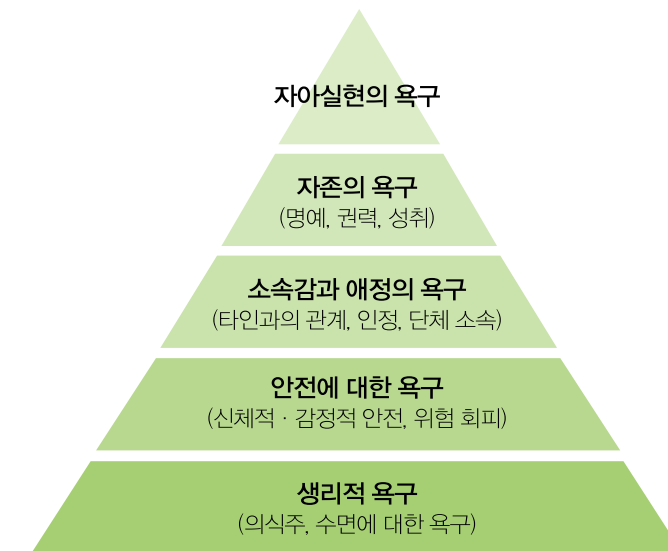
여러 분야를 섭렵하고자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지식의 깊이다. 얕은 지식은 금방 탄로 난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과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할지, 아니면 무시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다. 다재다능한 인재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각 분야에 대해 얕은 지식이 아닌 준전문가 정도의 지식을 축적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말만 많고 지식은 없는 실속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 주특기가 없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 즉 자신의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질문도 한다. 다재다능하다는 것은 양면의 칼과 같다. 잘 쓰면 여러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잘못 쓰면 한 가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 상황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최선의 경우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차선의 경우는 한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기타 분야에서는 보통의 경우보다 더 깊은 지식을 얻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아는 것 없으면서 여러 분야에 손대는 것이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매슬로(Maslow)라는 학자가 있다.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나누어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로 이동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를 욕구 단계 이론(Hierarchy of Needs Theory)이라고 한다.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의식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결국 자아실현 욕구를 갖게 된다. 직장 생활에 필요한 여러 지식의 습득을 자아실현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될 것이다.

굳이 직장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무엇인가를 한다는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는 그 자체를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우주의 나이나 철학사상의 흐름같이 정답을 알고 있다 해도 먹고사는 데 전혀 도움 안 되는 지식, 그 지식을 안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즐거움을 주지 않겠는가. ㉞





# 빵 굽는 냄새는 행복의 냄새와 담아있다

아이들은 너무 빨리 자라고, 지금 이 순간밖에 누리지 못할 사랑스러움이 흘러가는 것은 늘 아쉽다. 아이들과 많은 것을 함께하고 싶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다. 사실 둘러보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이 많다. 양산공장 생산관리파트 이은옥 사우 가족이 양산 특산물 삼랑빵 만들기에 도전했다. 결혼 10년 차, 벡센타이어 입사 7년 차, 큰딸 10살, 작은아들 8살. 벡센타이어와 인생 그래프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는 이은옥 사주의 맛있는 체험에 동행했다.

글 김혜진 사진 서봉섭



## “와! 우리도 삼랑초등학교 다녀요!”

경남 양산시 하북면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숲속의 카페가 나타난다. 빵 냄새 솔솔 나는 양산 삼랑빵 베이커리 안으로 화사하게 화이트 룩으로 맞춰 입은 이은옥 사주의 네 가족이 들어왔다. 아이들이 삼랑초등학교에 다니다 보니 간판에 쓰여 있는 ‘삼랑빵’이라는 명칭이 반가운 눈치.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위기가 찾아오는 듯했다. 10살 시현이, 8살 준서가 잔디밭의 강아지들에게 시선을 빼앗겨버린 것이다, “밖에서 강아지랑 놀고 싶어요”라며 강아지 같은 눈망울로 호소했지만, 우선 빵부터 만들고 나중에 강아지랑 놀자는 엄마 아빠의 말에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삼랑빵 베이커리 김성권 대표가 미리 준비해둔 조리 도구들 중 계량 저울을 본 준서의 귀여운 질문에 모두의 웃음이 터졌다. “이건 빵 몸무게 재는 거예요?” “그렇지! 똑똑하네!”

##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이 힘을 합쳐 으쌔으쌔

체험을 시작하기 전에 깨끗이 손을 씻고 앞치마를 매는 것도 잊지 않는다. 오늘 체험을 도와줄 김성권 대표가 삼랑빵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다. “삼랑은 양산의 옛 이름이에요. 양산의 특산물로 사랑받던 유정란을 특화해서 만들었어요. 유정란은 일반 달걀에 비해 고소한 맛이 강해요.” 24시간 동안 숙성시켰다는 노란 빛깔의 윤기 나는 반죽이 인상적이었다.

삼랑빵은 빵 위에 새겨진 글씨의 음각과 양각에 따라 맛이 다르다. 음각으로 새겨진 빵은 아몬드 분말 반죽에 호두, 아몬드, 밤, 헤이즐넛, 호박씨, 건포도와 백앙금을 섞어 만든 고소한 맛, 양각으로 새겨진 빵은 호두, 아몬드, 피칸, 캐슈너트, 해바라기씨, 레몬 향이 들어간 적양금의 달콤한 맛이다. 이은옥 사우 가족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견과류가 잔뜩 들어간 달달한 적양금을 택했다.







계량 저울로 22g을 재서 동글동글 예쁘게 모양을 만드는 솜씨가 제법이다. “이건 너무 많네. 조금 덜어내자!” 앙금과 반죽을 총 24개 만드는 작업을 엄마 아빠와 힘을 합쳐 야무지게 해낸다. 체험을 도와주던 김 대표가 감탄한다. “보통 처음에는 재미있어하다가 점점 하기 싫어하는데 아이들 집중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많은 아이들이 체험을 하러 오는데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사이좋게 끝까지 체험을 진행하는 어린이들은 흔치 않다는 칭찬. 칭찬의 힘을 받아 반죽 안에 앙금을 넣고 동그랗게 만드는 쉽지 않은 과정까지 멋지게 해낸다.

아이들이 제일 재미있었던 과정은 다 된 반죽에 스탬프 틀을 꾸욱 눌러 이름을 새기는 일. ‘삼량’이라는 글자와 ‘충(忠)’이라는 글자가 뽕 하고 나타나는 게 재미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빠 엄마도 “이건 예쁘게 찍혔다!” “이건 내가 제일 잘 찍었어!”라며 신나 한다. 마지막으로 노오란 달걀물로 예쁘게 옷을 입혀주면 끝! 180℃ 오븐에 넣고 15분간 구워지길 기다리면 된다. 끝나자마자 준서가 해맑은 얼굴로 웃으며 묻는다. “이제 밖에 나가서 강아지랑 놀아도 돼요?”



### 갓 구워낸 바삭한 빵 맛은 취향 저격!

빵이 구워질 무렵 고소한 냄새가 술술 후각을 자극한다. 아이들도 강아지와 신나게 한바탕 놀고 들어와 빵을 기다렸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온 가족이 함께 만든 빵! 결과는 엄마 아빠도 아이들도 대만족이다. 한입 베어 문 빵의 첫 느낌은 빵보다는 쿠키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바삭한 식감과 사르르 녹아드는 질감이다. 겉은 바삭한데, 속은 고소한 견과류와 말린 과일이 쫄득하게 들어 있어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맛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아이들의 귀여운 웃음처럼, 이은옥 사우 가족이 함께 만든 그 향긋한 빵의 필수 재료는 행복 한 스푼, 사랑 두 스푼이다. ㉞



서울사무소 등산 마니아 4인

“거,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네”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땀으로 온몸이 젖어도, 맑은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시원한 바람을 맞는다면 산중에서는 모든 피로가 날아간다. 등산이 취미인 서울사무소 OE기술팀 김무열 팀장, 영업전략팀 문재환 차장, 전형주 사원과, 등산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문화혁신팀 김민영 대리가 모였다.

글 조병례 사진 이명호

**에디터** 안녕하세요. 산을 좋아해서 모인 네 분 환영합니다!

**문재환**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산을 정말 좋아하는 김무열 팀장님을 소개할게요. 스마트폰 사진보관함을 구경해보면 경치 좋기로 유명한 산에 많이 다니셨어요. 절벽이 엄청나고 산에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그런 곳들이요.

**김무열** 산에서 바다를 보려면 남해로 가야 해요. 전 친구들과 산행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동네 뒷산도 좋고, 가끔은 제대로 준비해서 먼 지역의 산을 오르기도 해요. 최근에는 지리산 1박 3일 종주를 다녀왔어요.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새벽부터 등산하는 거죠.

**전형주** 저도 2년 전에 지리산 종주를 혼자 했어요. 서울 영등포역에서 출발해 새벽에 전남 구례 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캄캄한 다섯시부터 랜턴에 의지해서 산행을 시작하고요. 다시 밤이 되면 산장에서 묵는데 처음엔 혼자지만 나중엔 일행이 생기죠.

**문재환** 각자 왔어도 산장에서, 등산로에서 계속 얼굴을 마주치니까 친해지더라고요. 저도 학생 때 지리산 다녀온 기억이 너무 좋아서 몇 년 전에 또 한 번 도전했어요. 두 번째는 친구를 꼬여 2박 3일 일정으로 캠핑 준비를 해갔는데 옛날과 다르게 국립공원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산장 근처에서 별을 보며 비박했어요. 낮에는 힘들었지만 산 속에서 별을 보며 잠들었던 추억이 낭만적이었습니다.

**김민영** 여럿이 가면 준비물을 분담할 수 있는데 혼자 가려면 챙겨야 할 것이 많겠네요. 저는 등산이라면 걸음마 수준의 산책이 전부인데, 세 분 이야기를 들으니 산행에 흥미가 생기네요.

**에디터** 김민영 대리 같은 초심자를 위해 산행에 대해 조언 좀 해주세요. 산행을 준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문재환** 체력이죠. 세 분은 평소 마라톤이나 헬스로 체력 관리를 하는데, 저는 별도의 운동은 하지 않고 산에 자주 가면 그게 바로 체력 관리라고 생각해요. 체력 안배와 시간 안배도 잘해야 해요.





체력을 다 쓰고 해가 진 다음 하산하려면 위험하니까요.

**김무열** 초보자들은 산에 한 번 다녀오면 자기 체력이 어느 수준인지 알게 되죠. 한계를 알아야 무리하지 않는 수준의 코스를 짤 수 있어요. 20~30대 젊은 친구들이라면 기초 체력이 좋으니 다르겠네요. 전형주 사원 어땠어?

**전형주** 지리산 갔을 때 20대였어요. 전투 식량이라 필요한 짐만 챙겨서 그냥 올라갔지요.

**김민영** 지난가을에 서울사무소 전 직원이 관악산에 올랐잖아요. 올라보니 제 체력이 약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전형주** 체력보다는 의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김민영** 무엇보다 페이스 조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힘을 아껴 써야 하는데 출발부터 에너지를 소진하면 어느 순간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 질 때가 있죠.

**김무열** 그래도 정상에서 단체사진 찍어야 하니까 열심히 올라가야죠. 하하.

**문재환** 산에 다니면서 자신의 체력을 확인하게 돼요. 재작년에 관악산에 혼자 갔는데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간식도 동이 나고 정말 고생했어요. 산은 사람을 겸손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해주지요.

**전형주** 제 경험엔 관악산이나 지리산이나 한라산, 다 똑같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니까 왜 이 고생을 하나 싶은데요. 정상에 올라 경치를 보면서 땀을 식히면 그래도 올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잠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인생이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에디터** 그렇게 힘든데도 자꾸 산을 찾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군요.

**문재환** 다른 사람 경험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다른 부서 소속이라 데면데면했던 두 사람이 산에 다녀와서 굉장히 친해졌대요. 장시간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업무만으로도 바쁘니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산행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간적인 친밀함을 갖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걷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양복에 구두 차림으로 등산로를 오르고 있더라요. 그 일 이후로 생각도 정리되고 새로운 각오로 업무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김무열** 그 이야기는 산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준다는 것 같네요. 저도 다녀오면 머리가 맑아져서 산을 좋아해요.

**전형주** 저도 비슷한 이유로 지리산 종주를 결심했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인상 깊게 읽은 소설 <태백산맥>에서 빨치산들이 누빈 산에 가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가 다닌 등산로로 다니진 않았겠지만, 능선이며 산맥을 보니 지리산에 숨으면 확실히 찾기 힘들겠다 싶었어요.

**김민영**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산에 오르는 일이 많지 않았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듭니다. 제주도 한라산에도 가보고 싶은데 어때요?

**전형주** 한라산에 처음 간 날 폭설 때문에 대피소에서 통제됐거든요. 너무 아쉬워서 1년 후 다시 도전해 백록담을 직접 봤어요. 기분이 정말 좋았죠.

**김무열** '한라산' 하면 좋은 기억으로 회자되는 것 하나가 눈이죠. 눈 맞으며 하는 산행은 완만한 산에서나 가능한데 한라산이 바로 그런 곳이라 나도 가보고 싶어요.

**문재환** 저도 그래요. 다 같이 한라산 등반할 기회를 만들어봐야겠네요. 하하. ㉟



김무열 팀장



문재환 차장



김민영 대리



전형주 사원





## N-TALK홀 정기 강연

# 남극세종기지 그 위기의 순간 극한을 이겨낸 위기 관리 리더십

8월 17일 서울사무소 엔톡홀에서 남극세종기지 前 대장 윤호일 박사의 강연이 열렸다. 극한 남극에서의 생활 속에서 예기치 않은 일과 맞닥뜨렸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조직원들의 행동을 결정해줄 위기 관리 리더십이다. 이번 강연을 통해 원칙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글 김희진(문화혁신팀) 사진 이명현



- 모든 상황에서 규칙을 반드시 지킬 것
- 정직한 리더가 될 것
- 포용력을 가진, 사람 냄새 나는 리더가 될 것



## 위기 극복은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것

윤호일 박사의 희로애락 가득한 인생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강연이었다. 강연에 참석한 100여 명의 서울사무소 임직원들은 윤 박사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한 듯했다. 함께 웃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며 떠오르는 감정을 스스로없이 드러냈다.

강연 내용은 영하 80℃의 기온과 3m 앞도 보이지 않는 남극에서 제한적이고 극한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윤호일 박사는 함께 지내던 대원들의 부상과 실종, 아쉽게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동료 직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윤 박사가 강조한 리더십의 세부 주제는 다음과 같다. ▲모든 상황에서 규칙을 반드시 지킬 것 ▲정직한 리더가 될 것 ▲포용력을 가진, 사람 냄새 나는 리더가 될 것.

“규칙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칙과 기본을 무시하고 방심하면 조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이라면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리더일지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입니다.”

## 좋은 리더의 조건

윤 박사는 리더가 되긴 쉽지만 ‘진정한 리더’라 칭할 수 있는 리더는 되기 어렵다며 말을 이었다. “조직 사회에서 낙오자가 생기는 경우 그 낙오자를 도태시키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원을 지키는 희생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윤 박사를 향해 길고 큰 박수를 보내는 넥센인들의 표정을 보니 이 강연이 얼마나 듣는 이의 마음에 여운과 에너지를 주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강연을 들은 영업기획팀 정윤근 대리는 “남극에서의 생활상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극한의 생활환경을 극복하며 터득한 윤호일 대장님의 경영과 리더십은 앞으로 스스로 성장하는 데 또 다른 길을 제시했다”며 감상을 얘기했고, 렌탈파트 이민성 차장 또한 “넥스트레벨 렌탈파트를 운영하며 앞으로 직원들과의 대화와 관계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위기 봉착시 리더의 자세에 대해 새로운 시가을 가지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헬로우 넥센>이 전달하는 알차고 의미 있는 강연을 통해 성장하는 넥센인들의 모습이 기대된다. 📺



##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서로를 향한 신뢰,  
넥센타이어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힘입니다.





프리미엄 드라이빙을 위한 혁신 기술의 신제품

# N FERA AU7



엔페라의 명성을 이어갈 가장 완벽한 명작의 탄생.  
세상에 없던 프리미엄이 나타난다.  
프리미엄 드라이빙을 위한 엔페라 AU7만의 7가지 혁신 테크놀로지.

글/사진 박기석 (상품기획팀)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큰 볼륨을 차지한 HP급 엔프리즈(N'Priz) AH8을 출시한 데 이어 올여름 신개념 프리미엄 UHP '엔페라(N'FERA) AU7'을 론칭했다. 본격적인 론칭에 앞서 영종도 BMW 시승센터에서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시승회와 더불어 소개 행사가 열렸다.

엔페라 AU7은 최근 한국에서의 차량 선호도가, SUV를 제외한 승용차의 경우 수입차 비중이 높아짐과 더불어 고급화·대형화 추세가 이어지며 타이어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도 높아진 점에 착안하여 개발되었다.

경쟁사를 포함하여 시중에 많이 출시된 일반적인 UHP 타이어뿐만 아니라 기존 UHP Comfort 제품에 엔페라 AU5가 있었다면, 이번에 출시된 엔페라 AU7은 한국 시장에서 UHP고객의 다양해진 니즈를 반영해 새로운 프리미엄의 기준을 제시하는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속도 지수가 높고 편평비가 낮은 대부분의 UHP제품은 고속 주행 성능과 안정성 중심 설계로 마모 성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술은 구현하기 어렵다고 여겨졌다. 실제로 이러한 제품은 세계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한 엔페라 AU7은 이율배반적인 이 두 가지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술을 구현해, 새로운 개념으로 프리미엄급 소비자의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High Grip All Season UHP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바탕 위에 제품의 브랜드에 쓰인 70이란 숫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7가지 차별화된 신기술이 적용된 엔페라 AU7의 '7 – Advanced Technology'를 소개한다.

첫째, 엔페라 AU7을 기획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개발한 부분은 Wet 성능이다. 마일리지를 강화하면서 Wet 성능을 동시에 올리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기술이다. 축적된 Comp'd 기술과 구조 설계로 최초로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양립하기 어려운 기술 개념으로 'Wet Grip'과 '마일리지'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제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시장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마일리지 성능으로 발열을 제어하는 컴파운드 제조 기술인데, Wet Grip 성능을 Summer Sport형 패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마일리지는 경쟁사 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넘는 수준을 확보했다.

셋째, 노이즈(Noise)와 제동은 타이어의 기본 중의 기본적인 성능인데, 고인치 UHP 제품에서 발생하는 진동 수준을 종전 제품 대비 감소시켰다.





넷째,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강설 특성에 맞도록 고밀도 사이프 설계를 적용했으며, 저온의 제설에 의한 결빙이 생긴 슬러시(Slush) 노면에서도 안전성을 크게 강화했다.

다섯째, 엔페라 AU7에 적용된 세계 최초 특허 기술로, 블록 내부에 'Advanced 3D Sipe' 기술을 적용했다. Sipe 밀도가 조밀한 All Season 제품의 경우 많은 Sipe로 인해 블록의 강성이 떨어져 급제동 또는 마모 시 형상 변형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Advanced 3D Sipe' 기술로 블록 유동을 최소화하여 형상 변형을 방지하고, 주행을 지속함으로써 발생하는 성능 저하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여섯째, Run Flat 제품과 달리 도로 위의 예리한 이물질로 발생하는 펑크로 인한 공기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실란트 제품은 보통 고급 차종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이다. 그러나 한국 RE 제품 최초로 엔페라(N'FERA) AU7에 이 기술이 적용되어 출시돼 제품의 안전성을 크게 보강했다.

마지막 일곱째는 UHP 고인치 패턴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명음을 잡아주는 흡음 타이어 기술이다. 이 기술은 다른 경쟁사에도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타이어 내부 전체를 감싸는 흡음제 형태의 기술이라면, AU7에 적용된 차세대 흡음 기술(Noise Free System)은 4개의 흡음 블록만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소음 저감 성능을 발휘하는 넥센타이어만의 특허 기술이 적용되어 한국 최초로 RE제품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한국 시장에 출시되는 규격은 총 33규격으로 국산 및 수입 고급 중대형 차량, 특히 프리미엄 차량에 요구되는 규격을 중심으로 출시했다. 넥센타이어의 집합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엔페라 AU7은 넥센타이어의 히트 제품으로 성장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국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대한다. 🎯

Driving Tomorrow

당신이 찾는 프리미엄 그 이상의 가치

**N'FERA AU7**

PREMIUM-COMFORT ULTRA HIGH PERFORMANCE

**NOISE FREE SYSTEM**  
저소음 흡음재 적용 시스템

프리미엄 드라이빙을 위한 엔페라 AU7만의 7가지 혁신 테크놀로지

<b>TECHNOLOGY 1</b>	<b>TECHNOLOGY 2</b>	<b>TECHNOLOGY 3</b>	<b>TECHNOLOGY 4</b>	<b>TECHNOLOGY 5</b>	<b>TECHNOLOGY 6</b>	<b>TECHNOLOGY 7</b>
숫자 7을 모티브로 한 감각적 스타일의 패턴 디자인 밸런스	최상의 소음성능과 저 진동 설계로 탁월한 승차감	내구성 향상을 위한 3D 사이프 적용으로 강력해진 트레드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우에 대비한 뛰어난 배수성능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강력한 윈터성능	공명음 저감을 흡음재 적용으로 획기적인 소음저감	펑크가 나도 드라이빙은 계속된다 넥센스마트빌 적용

**NEXEN TIRE**





그라운드 위 넥센타이어

# 영국 프리미어리그 변화의 중심에 서다

넥센타이어는 2017년 3월 맨체스터 시티 FC와 영국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선수 유니폼 소매에 기업 로고를 노출하는 방식의 유니폼 브랜딩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맨시티는 어떤 팀이고, 맨시티 후원은 넥센타이어에 어떤 의미일까?

글/사진 노창기 (전략마케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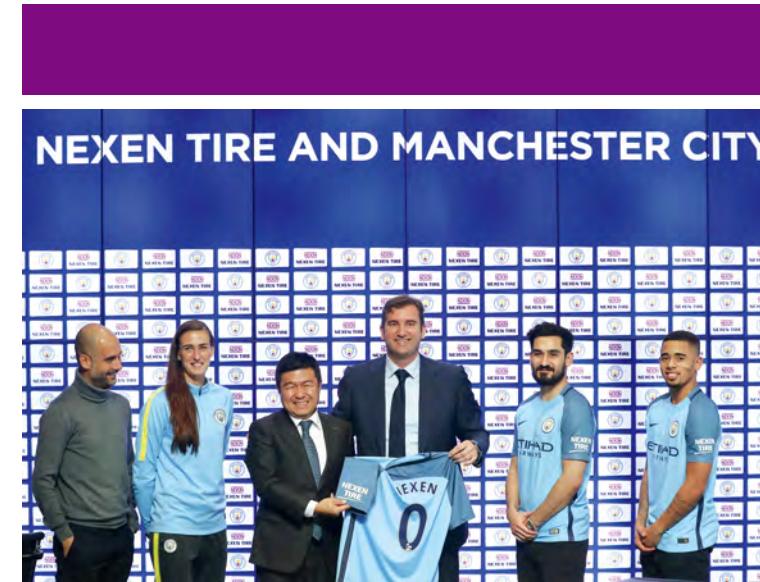
## 영국 프리미어리그 최초의 슬리브 스폰서

영국 노스햄튼셔셔 지역의 케터링 타이어(Kettering Tyres)는 1976년 축구 경기를 보러 온 관객에게 자신의 회사를 알리기 위해 케터링 타운 축구 클럽 경기복 가슴에 스폰서 광고를 노출했다. 오늘날 케터링 타이어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스폰서십의 기원이 되었고, 그 이후 계속 회자되고 있다. 2016~17 시즌 기준으로 후원금 규모가 22억 6천5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이하 EPL)는 올해, 1992년 리그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경기복 소매에 스폰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2017년 3월 넥센타이어는 맨체스터 시티 FC(이하 맨시티)와의 스폰서십 계약을 통해 EPL 최초의 슬리브(Sleeve) 스폰서가 되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넥센타이어가 지속적으로 회자되는 그날을 고대해본다.

## 새로운 지평 열어가는 맨시티

맨체스터 시티 동부에 위치한 맨시티는 1880년 '세이트 마크스 웨스트 고든'이라는 팀으로 창단하여 1894년 '맨체스터 시티 FC'로 공식 출범했으며, 창단 이래 유러피언컵 위너스컵 1회, 프리미어리그 2회, FA컵 5회 우승을 차지했다. 연고지는 영국 잉글랜드 그레이터맨체스터 주 맨체스터 시이며, 에티하드 스타디움을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박지성 선수의 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는 트래퍼드를 연고지로 하는 것과 달리, 맨체스터 이름을 가진 축구팀 중 유일하게 그레이터맨체스터 주 내 맨체스터 시를 연고로 하는 1부 리그 팀이다.

이후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오가며 우여곡절을 겪은 맨시티는 2008년 우리에게 '만수르'로 잘 알려진 중동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이 보유한 아부다비 유나이티드 그룹에 팀이 인수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FA컵 1회, EPL 2회, 캐피털원컵(Capital One Cup) 2회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것. 맨시티는 축구 발전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힘써 산업 시대 이후 1980년대 시 들어가던 맨체스터 동부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약 32만 4000m<sup>2</sup>에 16개의 운동장을 포함한 축구 관련 시설을 설립했다.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팬들을 위한 활동에도 힘써 2011년 이후 팬 238% 증가라는 기염을 토해냈다.



또한 글로벌 축구 스탠더드를 이끌겠다는 일념으로 시티 풋볼 그룹(이하 CFG)이라는 축구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미국, 호주, 일본 등 세계 각지의 축구 클럽을 사들이며 사업 영역을 글로벌로 확장해 나갔다. 최근에는 중국의 차이나 미디어 캐피탈과 협력하여 중국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로서 맨시티

넥센타이어와 맨시티는 새로운 리더십에 의한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업계 스탠더드를 향한 열정, 글로벌 회사로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15%를 기록하며 업계에서 보기 드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 넥스트레벨 서비스, 창녕 자동화 공장 등으로 업계 스탠더드를 세팅해나가고 있다. 또한 전 세계 140여 개국에 판매를 진행함으로써 글로벌 회사로 뻗어나가고 있다.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한국 선수를 보고 스포츠 팀을 후원하는 것과 달리 넥센타이어는 함께 성장해나가는 동력으로서 맨시티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동 활동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여 맨시티를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으로 삼고 넥센타이어의 모든 마케팅 활동에 맨시티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2015년 8월 맨시티와 첫 후원 계약을 맺은 후 글로벌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글로벌 타이어 회사로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맨시티를 소재로 ATL\* 및 BTL\*\* 모두에 걸쳐 전 방위 마케팅 활동을 해왔다. 1억 3000만 가구 시청으로 유럽 내 커버리지가 가장 높은 유로스포츠 매체를 통한 유럽 54개국 TV 캠페인을 진행해 유럽 내 약 6억 회 노출되었으며, 12개국 54개 매체의 글로벌 잡지 광고를 통해 약 570만 구독자(매체 프로필 기준)에게 노출하는 등 활발한 ATL 활동을 했으며, 스폰서 매치데이 행사, 넥센타이어 스킬스 챌린지 바이럴 영상, 온라인 이벤트 등을 통해 다양한 BTL 활동을 해왔다. 아울러 두 번의 퍼플 서밋 맨체스터 호스피탈리티 행사를 진행해 글로벌 타이어 딜러들을 대상으로 한층 높아진 넥센타이어의 위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 ATL : Above The Line. 전통적 4대 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한 마케팅  
\*\* BTL : Below The Line, ATL을 제외한 매체 및 이벤트, 프로모션 등의 마케팅



파트너십 제2기를 맞이하며

2017년 3월 넥센타이어는 맨시티 유니폼 소매에 회사 로고 노출을 포함하는 확대된 계약을 신규로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넥센타이어는 맨시티의 톱 티어(Top Tier) 후원사로 자리매김했으며, 기존 활동에 더하여 보다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2017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USA를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선수 운동복에 자사 로고를 노출함으로써 각종 중계 방송 및 뉴스 등을 통해 자사 로고가 전 세계에 지속 노출되며, 구단과 협력해 다양한 바이럴 영상을 제작하는 등 팬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예정이다. 아울러 마이크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소개하고, 선수 및 구단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매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더욱 활발하게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사회적 활동도 맨시티의 모(母) 그룹인 CFG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넥센타이어는 맨시티의 단순한 후원사가 아니라, 맨시티와 공동의 비전을 향해서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파트너로서 도약해나갈 것이다. ㉞



# 전국 가을 단풍 명소 가을을 그대 품 안에



거리를 거닐다 보면 마음마저 가을빛으로 물드는 계절이다. ‘단풍’ 하면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명소, 설악산과 전라남도 백양사, 60여 년 만에 재개방된 서울 덕수궁 돌담길로 초대한다.

글 조병례



## 금강산보다 좋다는 설악산

설악산은 사계절 언제든 좋지만 가을에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이다. 10월로 접어들며 설악산은 대청봉부터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고도가 높은 내설악 일대보다 외설악이 단풍이 늦게 들어 11월에도 단풍을 즐길 수 있다. 단풍을 감상하며 설악산을 오를 예정이라면 울산바위를 통해 정상까지 가거나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천불동계곡 코스를 추천한다. 천불동계곡 코스는 설악산 계곡 가운데 사랑받는 루트로 꼽히며, 오련폭포, 물골협곡 등 다양한 포인트를 거친다.

완만한 경사로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주전골도 단풍으로 유명하다. 주전골은 설악산국립공원 내 점봉산 기슭으로 뻗어 있다. 한계령을 넘어 내설악 산자락에 파묻힌 주전골은 계곡 트레킹 코스로 이름나 있다. 오색약수터에서 시작하는 코스 역시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한다. 오색온천단지 입구에서 오색약수터를 지나면 성곡사가 나오는데, 바로 옆에 난 계곡 양쪽으로 기암절벽이 펼쳐진다. 절벽 틈에 난 단풍과 단풍을 비추는 계곡의 맑은 물이 무척 아름답다. 선녀탕 일대인 이곳은 옥빛 물과 널찍한 소(沼, 호수보다 얇게 물이 고여 있는 곳)가 장관이다. 오색약수터에서 출발해 용소폭포와 십이폭포, 만물상 등을 지나 오색약수터로 돌아오는 데 약 3시간이면 충분하다. 오색약수는 위장병이나 당뇨병에 효과 좋은 탄산수로 알려져 있다. 산행을 마친 뒤에는 오색온천단지의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는 것도 좋다.






## 숨겨진 골목길의 매력, 덕수궁 돌담길

서울에 새로운 단풍 명소가 생겼다. 60여 년간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됐던 덕수궁 돌담길의 100m 구간이 정식으로 개방된 것. 1959년부터 영국대사관이 점유해 철문으로 막혀 있었던 것을, 2014년부터 서울시가 영국대사관과 논의한 끝에 2016년 개방 합의를 이뤄냈다. 덕수궁 대한문 옆을 지나 정동극장까지 이어지는 기존 덕수궁 돌담길에 비해 새로운 돌담길은 더 아름답고 고즈넉한 매력을 품고 있어 지난 8월 30일 개방된 후 이미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가을 공기를 느끼며 거닐어본 이 길은 덕수궁 돌담과 마주 보는 영국식 붉은 담장과 단풍, 낙엽으로 이국적인 풍경을 보여준다. 담장이 낮고 곡선이 흐르는 모양으로 구성돼 있으며, 길 끝이 새로 생긴 덕수궁 후문과 연결된다. 야간에는 덕수궁 담장의 조명이 은은하게 비쳐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긴다.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마련된 덕수궁 페어숍을 둘러보는 것도 추천한다. 덕수궁 페어숍은 대한문에서 원형분수대에 이르는 사회적 경제 장터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린다. 페어숍을 방문하면 청년사업가, 장애인기업 등이 생산한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토요일에는 도자기 제작 등 다양한 체험과 공연 감상을 할 수 있는 ‘덕수궁 피크닉’도 마련되며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므로 불편 없이 가을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 우리나라 제일의 단풍 명소, 내장산

내장산은 한국에서 ‘단풍’ 하면 제일로 꼽는 곳이다. 단풍 구경하기 좋은 포인트가 여럿 있지만 그중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700살의 수령을 자랑하는 갈참나무다. 상당한 위용을 뽐내는 갈참나무에서 도토리를 모으려는 귀여운 다람쥐를 만날 수도 있다.

내장산의 자랑거리는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백양사다. 갈참나무와 더불어 300년 된 나무들이 숲을 이뤄 그 어떤 곳보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가을이면 단풍을 보기 위해 모인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유다.

매표소에서 백양사까지 늘어진 단풍 터널 또한 압권이다. 다양한 수종이 어우러져 포근한 느낌이 든다. 백양사 입구에서 보이는 바위절벽 백학봉과 연못, 연못에 비친 쌍계루 풍경 또한 감탄을 자아낸다. 계곡에 독을 막아 만든 연못에 가을 단풍이 내려앉으면 그마저도 운치 있게 느껴진다. 백양사 근처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자나무 숲도 볼거리다. 비자나무는 사철 푸른빛으로 붉은 단풍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다.







# 건강 위해 등산?

MOUNTAIN-CLIMBING

## 등산 위해 준비 만반!

선선한 바람과 알록달록하게 물든 가을 산은 평소 운동을 즐기지 않던 사람도 오르고 싶게 마음을 간지럽힌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산에 올랐다가는 자칫 사고가 나기 쉽다. 등산화 고르기부터 장비 이용법, 출발 전 갖춰야 할 준비 등에 대해 알아보자.

글 조병례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하기로 마음먹었어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초보자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장비를 갖추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것이 내게 맞는 장비인지 아는 눈을 키울 필요가 있다. 산행 경험이 쌓이면서 불편한 것을 파악하고 바꿔나 가면 된다.

### 잘 맞는 등산화 준비가 첫 번째

산행은 발로 걷는 운동이므로 내 발에 잘 맞는 등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산을 자주 찾을지, 사이즈는 어떤지를 고려해 등산화를 선택하자. 등산화는 목 부분 높이에 따라 낮은 것은 로켓, 복숭아뼈 높이는 미드컷, 그보다 높으면 하이컷으로 구분한다. 가벼운 산행에는 로켓이나 미드컷 스타일을, 장거리 또는 험준한 코스에 갈 때는 중등산화인 하이컷을 주로 이용한다. 등산화를 고를 때는 신었을 때 조금 여유 있는 사이즈로 선택해야 한다. 등산화를 신고 발가락을 신발 앞까지 최대한 넣었을 때 뒤꿈치에 새끼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넉넉한 사이즈가 좋다.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발이 앞으로 쏠리는데 신발에 여유가 없으면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보다 큰 사이즈를 신었을 때는 등산화가 발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못하므로 체력 소모가 많고 부상 위험도 커진다. 등산화는 끈을 잘 묶으면 산행이 한결 편해진다. 미드컷 이상 높이의 등산화를 신고 오르막을 걸을 때는 끈을 느슨하게 매고 내리막에서는 단단히 매야 한다. 느슨하게 묶으면 발목을 굽히기가 자유롭지만 하산길에서는 등산화가 발을 잡아주지 못하므로 안정감이 없고 물집이 생길 수 있다. 산행 중 등산화 때문에 발목이 조여 불편을 느낀다면 발등 부분의 끈만 꼭 묶고 걷다가 익숙해지면 상단까지 묶는 것을 권한다.







## 내 몸의 일부, 등산스틱

등산스틱은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주고 체력 소모를 줄여줘 산행 시 꼭 필요한 장비다. 알루미늄 합금 소재인 두랄루민, 티타늄 또는 카본으로 제작된다. 가격과 무게가 각각 다르므로 예산과 사용감을 고려해 고른다.

등산스틱은 체중을 분산시켜 무릎의 하중을 줄이고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하지만 스틱 쥐는 방법이 잘못됐다면 오히려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스틱을 질 때는 스트랩 밑에서 위로 손을 넣고 손바닥으로 스트랩을 감싸며 그립을 함께 잡는 것이 좋다. 스틱을 쥐지 않고 스트랩만 손목에 걸고 있다가 넘어지거나 하면 스틱에 의해 손가락 관절을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스틱을 한 개만 이용하면 체중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으므로 양손에 각각 한 개씩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 전에는 반드시 내 키에 맞게 길이를 조절하자. 오르막길에서는 조금 짧은 것이 좋고, 내리막길에서는 약간 길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트레킹학교 윤치술 교장이 고안한 ‘마더스틱 보행법’에 따르면 평지 및 오르막에서는 스틱을 어깨너비보다 약간 넓은 위치에 찍고 몸을 스틱에 기댄다는 느낌으로 민다. 팔꿈치가 굽혀지면서 스틱이 일어서고, 체중이 실린 스틱 사이로 몸이 빠져나간다. 추진력을 얻기 위해 스틱은 가볍게 민다. 내리막에서도 스틱은 어깨너비보다 약간 넓은 위치에 찍는다. 진행 방향 앞쪽으로 스틱이 직각이 될 때 스틱을 너무 멀리 않게 던지고 스틱에 지지하며 걷는다.

## 부상 없는 안전한 산행

산에 오를 때는 체력 안배를 잘해야 한다. 초반에 의욕이 넘쳐 걷다 보면 체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산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굳어 있던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준비운동이 필수다. 근육이 아플 정도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유연성을 높이는 수준으로 가볍게 당기며 스트레칭한다.

하산 후에도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 근육통을 예방할 수 있다. 발목이나 무릎 같은 관절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몸을 충분히 이완시켜주자.

등산로에서 걸을 때는 보폭을 짧게 하면서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서 걸어보자. 경사면에서는 발끝을 약간 올려 평평하게 하고 신발 바닥 전체로 지면을 누르듯 착지하면 된다. 내리막을 걸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가속도가 붙어 다리와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다. 근육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강하게 착지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평지에서보다 절반 정도 속도로 천천히 걷는 것이 좋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더욱 천천히 발을 내딛고 미끄러운 돌이나 이끼가 없는지 잘 살피며 걷는다. 발뒤꿈치로 착지점을 찾으려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는 것이 좋다.

열심히 걷다 보면 금세 땀이 나기 시작한다. 일교차가 큰 가을 산행에서는 발에 난 땀을 빨리 건조시켜야 한다. 땀이 배출되지 않으면 발에 상처를 입기 쉽다. 통풍이 원활한 기능성 소재 등산화화를 고르는 것이 좋고, 같은 이유로 등산양말 역시 잘 골라야 한다. 두툼한 등산양말은 땀을 흡수해 체온을 유지하며 발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피부가 쏠려 물집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발가락 등산양말도 등장해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산행도 스마트하게

등산 준비물 챙기기부터 코스 추천, 위급한 경우 조난 신고까지, 스마트폰 속에 애플리케이션만 갖추고 있다면 손쉽게 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는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에서는 전국 국립공원 코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도를 다운받거나 등산로 내비게이션, 트레킹 기능과 날씨 정보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조난 신고까지 가능해 등산객들에게 꼭 필요한 앱으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활용해 탐방로의 경사도를 체크하거나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비콘으로 낙석, 상습 결빙 구간 등의 위험 지역 정보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야영지와 화장실, 대피소 위치 정보, 탐방객 안전 수칙까지 확인할 수 있다.

‘트랭글’ 앱은 우리나라 4500여 개의 등산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동 시간과 이동 경로, 속도, 이에 따른 칼로리 소모량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이 활동 기록을 저장해두고 타 이용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



국립공원 산행정보

트랭글



## 맛·영양 모두 갖춘 식사 초간단 아침밥 레시피

대부분의 현대인에게 아침은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다. 거창하게 한 상 차려 먹을 여유 따윈 없다. 길어야 15분 정도, 쉽고 빠르고 건강하게 즐기는 레시피를 따라 해보자. 오늘의 아침 메뉴는 이거다.

자료협조 <후다닥 아침 레시피> 효형출판

### 버터 간장 참치 우동

#### 재료(1인 기준)

- 우동 면 1인분
- + 참치 통조림(小) 1개
- + 무순 1/2팩
- + 버터 10g
- + 간장 2작은술

#### 만드는 방법

- 1 내열 용기에 우동 면을 담고 랍을 씌워 전자레인지에서 2분간 돌린다.
- 2 그릇에 옮겨 담은 후 참치, 무순, 버터를 올리고 간장을 뿌린다. 잘 섞어 먹는다.



### 베이컨 토스트 볶음



#### 재료(1인 기준)

- 식빵 1장 + 베이컨 2장 + 파슬리 적당량
- + 식용유 적당량 + 홀그레인 머스터드 1큰술

#### 만드는 방법

- 1 식빵은 9등분으로 자른다. 베이컨은 2cm 폭으로 자른다.
- 2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얇게 바른 뒤 빵을 바닥에 깔고 베이컨을 올려 중불에 굽는다. 2분 정도 굽고 빵을 뒤집는다. 베이컨이 살짝 수축하면 다 같이 섞으며 볶아준다.
- 3 그릇에 담는다. 손으로 대충 찢은 파슬리를 뿌리고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곁들인다.



## 탱글탱글 오믈렛

### 재료(1인 기준)

- 달걀 3개
- + 마요네즈 1큰술
- + 소금 약간
- + 후추 약간
- + 식용유 2작은술

### 만드는 방법

- ① 볼에 달걀을 깨 넣고 30번 정도 휘저은 후 식용유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넣고 섞는다.
- ② 프라이팬(20cm)에 식용유를 두르고 중불에서 2분 정도 달군 뒤 젓가락 끝으로 달걀물을 살짝 찍어 팬에 떨어뜨렸을 때 치익 하는 소리가 나면 불을 위로 높게 들어 달걀물을 한 번에 쏟아붓는다.
- ③ 10초 정도 기다려 테두리가 익기 시작하면 고무 주걱으로 빠르게 30번 정도 뒤섞는다.
- ④ 프라이팬을 바깥쪽으로 기울여 오믈렛을 구석으로 몰고 럭비공 모양을 잡는다.
- ⑤ 오믈렛이 퍼지지 않도록 20초 정도 익힌다. 고무 주걱으로 한 번에 휙 뒤집어 그릇에 담는다.



## 미역 두부 명란뎃밥

### 재료(1인 기준)

- 밥 150g + 두부 1/2모
- + 마른미역 5g
- + 명란젓 1/2덩어리
- + 참기름 1작은술 + 간장 1작은술

### 만드는 방법

- ① 두부에 준비된 재료를 순서대로 넣고 섞어서 뜨거운 밥 위에 얹어 먹는다.



〈후다닥 아침 레시피〉에는 평일 아침을 위한 5분 레시피가 한가득 담겨 있다.  
달걀, 빵, 쌀(밥), 디저트, 과일과 채소, 국물이 있는 끼니로 나누어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 전문직주연 영화 BEST 3

# 치열한 **삶의 현장**

우린 생소하고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전문가들에게 호감을 갖는다. 이들에게 사회적 책임, 윤리적 사명, 일종의 사명감 등이 투영되면 영웅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예컨대 석해균 선장을 살리기 위해 본업에 지독히 충실했던 아주대 이국종 외과 교수, 가톨릭 교단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직업적 사명을 갖고 끝까지 파헤쳤던 <보스턴글로브> 기자들, 이들 전문직 종사자들의 애환과 활약상을 조명한다.

글 이영환 칼럼니스트

## 체험 **삶의 현장**

#기자 부문#  
윤리적 사명감의 마이크 레젠데스

“팀장님 아이가 (성추행) 당할 수 있었으, 내 아이가 당할 수 있었다고! (중략) 우리가 잡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 스포트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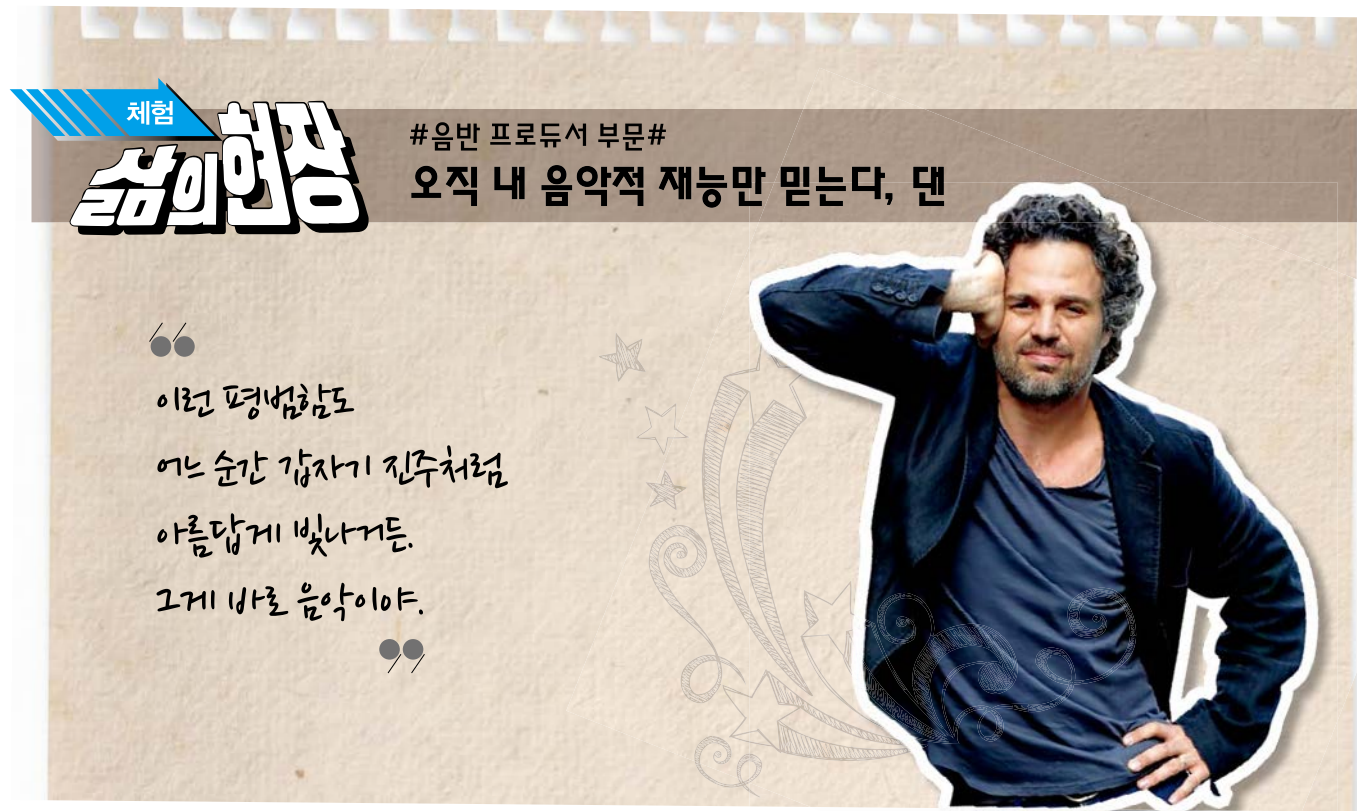
개봉 : 2016년  
연출 : 토마스 맥카시  
러닝 타임 : 128분  
출연 : 마크 러팔로, 레이첼 맥아담스, 마이클 키튼 외

이 영화는 실화다. <보스턴글로브> 기자들은 가톨릭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취재한다. 권력과 종교 세력의 저항에 맞서는 ‘스포트라이트팀’ 기자들은 성스러운 이름 속에 감춰졌던 사제들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려 한다. 훗날 스포트라이트팀의 이 기사는 언론인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인 폴리처상을 받기도 한다.

주요 인물인 마이크 레젠데스(마크 러팔로)는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졌다. 윤리적 사명감도 강하다. 그래서 근로계약상 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밤낮으로 사건을 취재한다. 법원, 경찰서는 물론이고 피해자, 가해자 할 것 없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만나며 사건 깊숙이 들어가 파헤친다. 기자의 사명감과 치열한 직업의식을 가진 그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끔찍한 범죄 행각을 하루라도 빨리 보도하길 원한다. 머리부터 못 잡더라도 일부 범죄자의 행각만이라도 빨리 기사를 공개해 대중에게 알리고자 한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하루 빨리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 하지만 팀장의 생각은 다르다. 교단의 조직적 은폐 사실을 밝혀 폐단을 뿌리 뽑는 대의를 위해 보도를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정의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권력에 항거하지 않는 언론인의 독심. 정의 실현을 위한 고뇌.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독일을 실현하는 과정을 건조하고 담백한 연출로 표현해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과 각본상을 받았다. 아카데미 수상작은 조금 지루하다는 편견이 있어도 괜찮다. 영화의 짜임새와 리듬이 좋아서 느슨해질 틈 없이 집중해 감상할 수 있다.





**비긴어게인**  
개봉 : 2014년  
연출 : 존 카니  
러닝 타임 : 104분  
출연 : 마크 러팔로, 키이라 나이틀리, 애덤 리바인 외

스타 음반 프로듀서였지만 지금은 좋은 직장에서 해고된 '댄(마크 러팔로)'은 본인의 음악적 감수성과 직감에 의존하는 전천후 고집쟁이 프로듀서다. 최신 유행 따위에 휩쓸리는 음악가들의 데모 테이프는 창밖으로 집어던지기도 하는 다혈질 음악 전문가다. 댄은 제대로 된 음악가를 데뷔시켜 지독한 생활고와 음악적 갈등을 해소하길 원한다. 그는 불철주야 진주를 찾아다닌다. 하지만 눈에 띄는 인재는 도무지 나오지 않고, 미치기 일보직전에 들른 뮤직바에서 댄은 그레타(키이라 나이틀리)의 자작곡을 듣게 되고 그녀의 가능성을 엿본다. 그는 곧바로 음반 제작을 제안한다. 우여곡절 끝에 댄은 그레타의 음반 제작을 맡게 된다. 물론 해고된 댄에겐 마땅한 투자처가 없으므로 그간 쌓아온 인맥을 활용해 도움을 받으며 뉴욕 도심에 스튜디오 삼아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다.

댄은 치열하게 산다. 투자비가 없으므로 그녀를 데뷔시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는 시도한다. 생존과 음악적 자존심을 위해 뛰고 또 뛴다. 스튜디오가 없으면 뉴욕 도심에서 녹음한다. 세션 연주자가 없으면 얼굴에 솜털이 풍성한 남고생을 쓴다.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붙잡아 코러스 보컬을 맡긴다. 말 안 듣는 딸내미도 일렉 기타 세션으로 만든다. 본인의 직감과 음악적 고집을 버리지 않은 예술가이자 대중음악 프로듀서인 그는 상업과 예술 영역에서 줄타기를 하며 성공가도를 달리고자 한다. 치열하게 살더라도 충분히 즐기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단다... 역시 음악이라는 것은 어쩌면 댄의 말대로 '일상을 진주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무언가일지도.



**내 강파 같은 애인**  
개봉 : 2010년  
연출 : 김광식  
러닝 타임 : 105분  
출연 : 박종훈, 정유미, 박원상 외

세진(정유미)은 지방대에서 IT를 공부한 사회 초년생이다. 그녀는 서울 반지하에 사는 취업 준비생으로 서울의 높은 취업 문턱을 넘으려 고군분투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물론이고, 옆집 강파 이웃이 하는 전단지 아르바이트에도 관심을 보인다. 공상과 비굴의 연속이다. 그것은 IT 종사자가 겪는 실무의 치열함보다 더욱 강력한 무언가일지도 모른다. 현업의 치열함보다 그 무엇이 되기 위한 치열함이 더욱 고달프기 때문이다. 세진은 실력을 갖췄지만, 면접 때마다 성희롱과 무시만 당한다. 늘 취업 문턱에서 좌절한다.

그녀의 압축적 명대사는 우여곡절 끝에 찾은 마지막 면접 자리에서의 대답이다. 이 회사는 학벌이나 경력보다 실력으로 사람을 뽑는 곳이다. 늘 조롱과 무시만 일관하던 면접관과 달리 이 회사 면접관들은 IT 직무에 대한 실무적 질문을 그녀에게 한다. 세진은 아주 똑 부러지고 아무지게 대답한다. 면접관들은 놀란다. 그녀의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이 높아서다. 면접관이 다시 묻는다. “왜 그동안 계속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그간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한 회사는 없었다. 지방대라는 타이틀과 여성이라는 점 때문인지 제대로 된 질문은커녕 늘 조롱과 멸시만 당하며 취업 문턱에서 좌절했던 것이다. 마침내 그녀는 이 회사에 취업한다.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한다. 어느새 ‘최연소 대리’라는 타이틀도 획득한다. 다음은 새로 입사한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세진 대리가 이들에게 하는 첫인사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쩌면 전문직의 치열한 삶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고단함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 아닐까. ㉞



## 2017년 가을호 〈헬로우 넥센〉 참여 후기

가을호 제작에 참여해주신 넥센타이어  
사우들의 따스한 후기, 함께 읽어요.



위 아 더 넥센  
(창녕) 가류파트 | 정상복 직장

사보를 촬영하면서 인터뷰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팀원들과 평상시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소통하지만 막상 자랑스러운 일들을 얘기하려니 쑥스러워지는 느낌이 젊은 시절 맞선 볼 때가 생각나더군요. 앞으로 조원들과 더욱 자주 허심탄회하게 소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헬로우 넥센〉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 아 더 넥센  
(창녕) 가류파트 | 이창호 대리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 동료들의 웃음과 미소를 잠시 잊지 않았나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이번 사보 촬영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동료들과 항상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헬로우 넥센〉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패밀리 데이  
(양산) 생산관리파트 | 이은욱 사우

양산 삼랑빵 만들기 가족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가족과 직접 빵을 만들며 함께할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상기시켜준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멋진 추억 쌓으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야겠습니다. 아이들 방학 동안 우리 가족에게 좋은 추억 만들어주신 〈헬로우 넥센〉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대 : 담하다  
문화혁신팀 | 김민영 대리

동호회 소개를 통해 좋은 곳에서 즐겁고 좋은 시간,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좋아하는 취미에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으니,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 넥센〉과 많은 동호회가 좋은 추억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 : 담하다  
영업전략팀 | 전형주 사원

평소에 같이하기 어려웠던 팀장님, 차장님, 대리님과 공통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산들에 대한 정보와 산행에 대한 소소한 팁을 공유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 우리 팀 및 동호회 자랑하기
-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 ▶ 동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독자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QR코드를 확인하시면  
독자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헬로우 넥센〉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김희진 대리

02-3480-0369 hellonexen@nexentire.com

독자 선물 당첨자

이춘성 서울 구로구 경인로

조영민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정창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NEXEN TIRE**